

리아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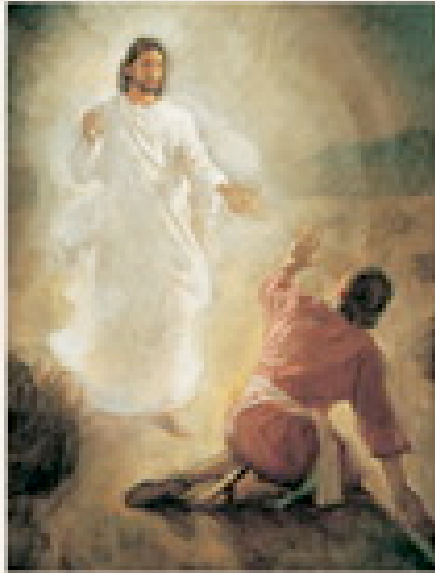
아담의 시대로부터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교훈들, 10쪽

또래 집단의 압력에
대처하는 법, 26, 28쪽

온전한 가족이 되기 위한
여섯 가지 방안, 36쪽

친구를 데려가기, 친10쪽





“**주**님이 여러 시대에 걸쳐 그분의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왔습니다. 그 계획은 태초부터 완전했으며, 우리가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다가올 영원한 세상에서 그분과 함께 사는 기회를 얻을 때까지도 그러할 것입니다.” 엘 톰 페리 장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10쪽 참조



성인

제일회장단 메시지

2 첫번째 시현의 귀한 열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방문 교육 메시지

25 여성의 신성한 역할을 이해함

특집 기사

10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엘 톨 페리 장로
각 복음의 경륜의 시대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다

18 새로운 개종자가 굳건히 남도록 도움
수잔 더블류 태너
교회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재활동화 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사랑과 기쁨을 주는 일이다

22 새로운 개종자로 성공하기
게일 에스 아일리프
새로운 개종자가 복음 안에서 강해지기 위해 할 수 있는 세 가지

32 유아반에서 가르치고 집에서 가르침
마가렛 에스 리퍼스
새로운 초등학교 유아반 교재는 유아반 교사와 부모 모두에게 훌륭한 자원이다

36 온전한 가족
제임스 디 맥아더
가족이 온전하게 되도록 돕는 여섯 가지 원리

특집란

44 후기 성도의 소리
침례, 신권 축복, 개종, 한 잔의 차

48 이번 호 활용하기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이번 호 주제들, 성공적인 가정의 밤

표지
앞: 아담과 이브, 터클라스 프라이어.
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주님, 키이스 라슨.

청소년

특집 기사

8 조셉이 되어 보기
리카르도 레이에스 빌라타
내 인생을 바꿔 놓은 연극

16 가족 중에 혼자만 회원으로 지내는 것
켈리 윌리엄스
비록 나는 가족 중에서 유일한 교회 회원이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다

28 아무도 모를 거야
스탠리 지 엘리스 장로
유혹 받을 때, 이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40 세대
리차드 엠 롬니
복음에 충실할 때 가족은 세대를 거듭하여 보전된다

특집란

7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가르친 것: 단합

15 포스터: 그냥 보기만 하는 거라고요?

26 질의 응답
저는 다른 사람이 저에게 술이나 중독성 있는 것들을 권할까 봐 두렵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싫다고 말하거나 그들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그런 것들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 어린 자녀, 존 맥노튼

“[예수기]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누가복음 2:40)

2009년 2월호, 제46권, 제2호
리아호나 04282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판 공식 잡지인
제일회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아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심사도 정원화: 보이드 케이 파커, 엘 톨 페라,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킨,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해일즈,
제프리 알 홀랜드, 데이비드 에이 베타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편집인: 스펜서 제이 캔들
고문: 게리 제이 코울먼, 케네시 존슨, 요시히코 가꾸미,
더블유 더글라스 셸웨이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쉬네이트
편집 책임자: 비타 디 케이브
선인 편집인: 래리 할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이담 시 울슨
공동 편집인: 라이언 카
보조 편집인: 수잔 배렛
편집 스태프: 매튜 디 폴러턴,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폴러턴
라렌 포터 곤트, 캐리 캐스틴, 제니퍼 매디, 멜리사 매릴, 마이클 알 모리스,
샬리 제이 오타카키, 주디스 엠 팔라, 조슈아 제이 퍼키, 채드 이 패리스, 켄
유 핀보로우, 리처드 엠 롬니, 돈 엘 설, 제니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워렐
선인 비서: 로벨 투셔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킵트 밴 캠펬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타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엘리 알 아로요, 콜레트 네베커 오온, 허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텐슨, 킴
핀스타커, 캐슬린 허워드, 에릭 피 존슨, 드나스 커비, 스킵트 엠 무이, 지니
제이 넬슨
사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워크
배부 책임자: 랜디 제이 벤슨

통 관: 제515호, 제46권, 제2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9년 2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 윤 환
편집인: 박 승 호
번역 책임자: 조 현 석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로
배부과☎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자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리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신할라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일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히타이어, 헝가리어, 힌디어(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09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February 2009 Vol. 33 No. 2.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
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어린이

친2 와서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라: 병이 낫게 도움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특집 기사

친8 아담과 이브처럼
김벌리 리드

친10 활동의 날에 초대하기
메리앤 달 존슨

친14 나는 지금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팻시 피어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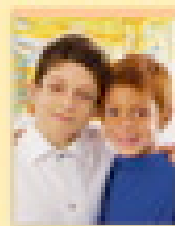
특집란

친4 함께 나누는 시간: 나는 튼튼한 연결 고리가 될 거예요
첼렐 에스플린

친6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날

친13 특별한 증인:
참된 개종이란 무엇인가요?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친16 색칠하기



친구들 표지
사진 삽화: 로레나이 에드마
포체토



이번 호에 숨겨진
우크라이나어
정의반 반지를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의를
택하듯이, 올바른
페이지를 선택해
보세요!

애독자 편지

더 많은 영

저는 훌륭한 두 아이들의 어머니이며
저의 남편은 협조적입니다.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리아호나는 참으로 우리
가족에게 현대의 나침반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밤에서 제일회장단 메시지와 기타
영감을 주는 기사들을 읽을 때, 더 많은
주님의 영이 우리 가정에 임합니다.
우리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힘을 느끼며, 위안과 화평을 얻습니다.
크리셴타 에스타요 파달라, 필리핀

결혼 생활에서의 겸손과 용서

저는 "자존심보다 결혼 관계를
먼저"(2008년 1월호)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결혼 성약의 책임을 더욱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약혼자와 함께 읽었으며, 우리 둘의
관계에서 겸손과 용서를 중요한 원리로
삼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액자에 넣어 앞으로 살게 될 우리
집에 걸어두고 우리가 이 메시지를 함께
읽으며 서로의 사랑을 강화시켰을 때
느꼈던 그 아름다운 영을 항상
기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클레비 나시멘토, 브라질



첫번째 시현의 귀한 열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독 일에서 지냈던 어린 시절에, 저는 조그마한 비밀 회합 장소, 멋진 별장, 그리고 매우 실용적인 현대식 예배당에 이르기까지 여러 다양한 지역과 환경에서 교회에 참석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건물에는 한 가지 공통된 중요한 요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또한 지부나 와드의 가족으로서 함께 모일 때 구주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쯔비카우 예배당에는 공기로 작동되는 낡은 풍금이 있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청남 한 명이 지명을 받아 그 풍금이 제대로 소리를 내도록 풀무 모양의 뾰족한 송풍기 레버를 위 아래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저는 아론 신권 소유자가 되기도 전에 가끔씩 이 중요한 일에 지명되는 커다란 특권을 가졌습니다.

회중이 회복에 대한 아름다운 찬송가를 부르는 동안 저는 풍금에 공기가 빠지지 않도록 있는 힘을 다해 펌프질을 했습니다. 반주자는 눈짓으로 제가 잘하고 있는지 혹은 더 힘을 들여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늘 제가 이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는 것과 반주자가 저를 신뢰한다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했습니다. 이 위대한 사업에 책임을 맡아 한 부분을 담당한다는 것은 굉장한 성취감을 주었습니다.

이 임무가 주는 또 다른 혜택도 있었는데, 그것은 송풍기 레버를 움직이는 사람은 예배당 전면을 아름답게 장식한 멋진 스테인드글라스가 보이는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테인드글라스에는 조셉 스미스가 성스러운 숲에서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 빛 기둥을 바라보는 첫번째 시현이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회중이 찬송가를 부르는 동안, 그리고 심지어는 회원들이 말씀과 간증을 하는 동안에도, 저는 세계 역사상 가장 거룩한 순간을 묘사한 이 그림을 자주 바라보곤 했습니다. 저는 조셉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든 축복 받은 도구가 되어 지식과 간증과 신성한 가르침을 받는 것을 제 마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이 창문의 그림에 그려져 있는 장면, 곧 성스러운 숲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진지하게 기도를 드리겠다는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린 믿음에 찬 소년의 아름다운 장면을 바라보면서 특별한 영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셉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영의 증거

저는 제2차 세계 대전의 상흔이 가지지 않은 독일의 한 도시에 사는 소년으로서 실제 그 시현이 일어난 북미의 뉴욕 주 팔마이러에서 수천



저는 온 세상에 두루 미치는 성신의 보편적인 권세를 통해 조셉 스미스가 참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분들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제 가슴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성스러운 숲에서 있었던 그 영광스러운 경험에 대한 조셉 스미스의 간증을 믿었으며, 그리고 지금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 리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간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며,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은 이와 같이 우리 개인의 삶, 가족의 삶, 그리고 결국은 모든 인류의 삶을 축복해 줍니다.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그리고 그 시현이 일어난 지 백 년 이상이나 지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온 세상에 두루 미치는 성신의 보편적인 권세를 통해 조셉 스미스가 참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분들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제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어린 나이의 제 영혼에 위안을 주고, 이 성스러운 첫번째 시현의 실재성과,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사업이 “굴러 나아가 ... 드디어는 온 땅을 가득 채우[게]”(교리와 성약 65:2) 될 것임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성스러운 숲에서 있었던 그 영광스러운 경험에 대한 조셉 스미스의 간증을 믿었으며, 그리고 지금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다시 인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린 시절 제가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간증을 얻도록 도움을 준 많은 친구들에게 감사하게 됩니다. 먼저 저는 그들의 간증을 믿는 단순한 신앙을 행사했으며, 그 다음에 제 생각과 마음에 영의 거룩한 증거를 받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으로 구주에 대한 저의 간증이 자라도록 도우신 분들 가운데에는 조셉 스미스도 포함됩니다.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을 증거하는 영의 가르침이 제게 임하기 전에, 어린 마음에 저는

조셉이 하나님의 친구였고, 그러므로 그가 당연히 제 친구도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셉 스미스를 신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경전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은사가 주어진다고 가르칩니다.(교리와 성약 46:9 참조)

“무릇 모두가 다 모든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많은 은사가 있고 또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한 가지 은사가 주어짐이니라.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주어지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다른 것이 주어지나니, 이는 모두가 그로써 유익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교리와 성약 46:11~12)

오늘날 저는, 어린 시절의 제 간증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교회의 다른 친구들의 간증을 통해 크게 강화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성신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가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교리와 성약 46:13) 알았습니다. 그들의 훌륭한 모범과 관심 어린 사랑과 도움의 손길은 제가 더 많은 빛과 진리를 갈구할 때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또 다른 특별한 영의 은사를 받도록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이들에게는 그들의 말을 믿게 해 주나니, 이는 만일 그들이 계속하여 충실하면 그들도 또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교리와 성약 46:14)는 은사입니다. 이 얼마나 훌륭하고 값진 은사입니까!

신앙의 은사

참으로 우리가 스스로 겸손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으나 참된 것에 대한 신앙과 소망을 갖게 되는 이러한 은사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앨마서 32:21 참조) 우리에게 주어진 경전과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이 참된지 시험해 보고, 적어도 믿고자 하는 의욕을 갖고 주님의 영을 거스르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은 커지고 우리의 이해력은 밝아질 것입니다. (앨마서 32:26~28 참조)

구주께서는 사도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심지어 오늘날 세상 도처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 드린 그 위대한 증보의 기도에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자비에 찬 이 원리를 분명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한복음 17:20~21, 강조 추가)

우리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간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며,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은 이와 같이 우리 개인의 삶, 가족의 삶, 그리고 결국은 모든 인류의 삶을 축복해 줍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조셉의 경우처럼 신성한 나타나심을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며, 자신이 “독생자와 닮은”(모세서 1:6)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간증했습니다. (사도행전 26:9~23 참조) 이 경험은 바울을 주님의 위대한 선교사들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지닌 아그립바 왕은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재판 도중에 하늘의 시현에 대해 증거하는 것을 듣고서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사도행전 26:28)라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도 그리스도에 대하여 강한 간증을 전했던 고대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대와 현대를 막론하고 이들의 모든 간증은 믿는 자들을 모든 의와 소망의 신성한 근원이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불확실과 불안전, 전쟁과 전쟁의 소문, 자연 재해와 인재가 가득 찬 시대에도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으로 그분의 모든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 조셉 스미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의 자비의 팔이 너희를 향하여 펼쳐져 있으니, 누구든지 오는 그를 내가 영접하리라.”(제3니파이 9:14) 이 권유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비길 데 없이 풍성한 그의 사랑에 에워싸여 있[게]”(앨마서 26:15) 될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의 개인적인 간증과 첫번째 시현의 실재를 믿는 우리의 신앙과 이에 대한 깊고 진지한 연구와 기도를 통해, 우리는 1820년 어느 이른 봄의 아름답고 화창한 날 조셉에게 말씀하셨던, 세상의 구주에 대한 굳건한 신앙으로 축복 받게 될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역사 1:14)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분에 대한 간증,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한 그분의 속죄에 대한 간증은 단순히 큰 신학적 가치를 지닌 교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신앙은 언어, 인종, 피부색, 국적, 혹은 사회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이 지구의 모든 문화권에서 영광스럽게 여겨지는 보편적인 은사입니다. 이성의 힘으로 이 은사를 이해하려 노력할 수는 있으나, 그 영향을 가장 깊게 느끼는 사람들은 참된 회개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순수하고 깨끗한 삶에서 오는 축복을 기꺼이 받아들일려 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선지자에 대한 감사

우리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기억하고 경의를 표할 때, 저는 그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는 친절한 마음과 하나님을 믿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진, 착하고, 정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분에 대한 간증,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한 그분의 속죄에 대한 간증은 단순히 큰 신학적 가치를 지닌 교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신앙은 언어, 인종, 피부색, 국적, 혹은 사회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이 지구의 모든 문화권에서 영광스럽게 여겨지는 보편적인 은사입니다.

겸손하고, 총명하고, 용기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고결했습니다. 그의 겸손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늘이 다시 열렸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실제로 시현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고 계시다는 것도 알았기에, 그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조셉 스미스-역사 1:25 참조)

그의 업적과 희생을 통해,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구속주요 구주이신 그분의 아들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공부한 후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면서 메시지를 나눈다. 다음에 제시된 몇 가지 예를 따를 수 있다.

1. 찬송가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기도"(찬송가, 24장)를 여러분이 방문한 가족과 함께 부른다. 첫번째 시현의 그림을 보여준다. 가족에게 그림에서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이 기사 첫 부분을 읽고, 우흐트도르프 회장이 첫번째 시현이 그려진 스테인드글라스를 보면서 느낀 점들에 대해 토론한다.

2. 가족과 기사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으면서 그들에게 우흐트도르프 회장이 설명한 첫번째 시현의 진리들을 찾아보게 한다. 가족에게 그들이 느끼는 첫번째 시현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으며, 또한 성신의 권세를 느끼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를 위한 그분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게 있어 이것들은 참으로 첫번째 시현의 열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과 그가 시현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을 믿는 단순한 신앙을 갖게 된 축복에 감사합니다.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몰몬경을 번역했습니다. 그 간증은 제게 거듭해서 확증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살아 계시며,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그분이 인류의 구속주요 구속주라는 개인적인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이 주는 형용할 수 없는 평안과 권능을 통해 이 지식을 얻었습니다. 제 마음과 생각에 담긴 소망은 영원토록 순수하고 충실하게 그분께 봉사하는 것입니다. ■

열매는 무엇인지 묻는다. 가족들에게 조셉 스미스에 대한 그들의 느낌을 나누도록 권유한다.

3. 방문을 준비하면서, 첫번째 시현에 관한 조셉 스미스의 말씀을 읽는다. (조셉 스미스-역사 1:11~20 참조) 첫번째 시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 어린 자녀들에게 첫번째 시현을 그림으로 그려보게 한다. 우흐트도르프 회장의 말씀 중 "하나님은 ... 자비와 사랑으로 그분의 모든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 조셉 스미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라는 부분을 함께 토론한다. 어린이들에게 그들이 그린 그림을 설명하게 한다.

단합

조셉 스미스는 단합에서 오는 힘을 이해하고 있었다.

교회 초창기에 주님은 후기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명하셨다. (교리와 성약 38:27 참조)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인생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기 위해 성도들을 조직하고 단합시켰다. 그는 성도들에게 시온의 대업을 위해 시간, 재능, 그리고 그들이 가진 것들을 희생하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며 격려했다. 다음은 단합에 관한 그의 가르침의 일부이다.

주님의 사업을 행하는 방법

“우리는 국내와 외국에서 ... 교회 전체를 통해 그러한 단합의 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이러한 원리를 통해, 그리고 단합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합은 힘입니다. ...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은 항상 이 원리를 증진시켜야 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은 반드시 그들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 주어질 것입니다.”

이기심을 버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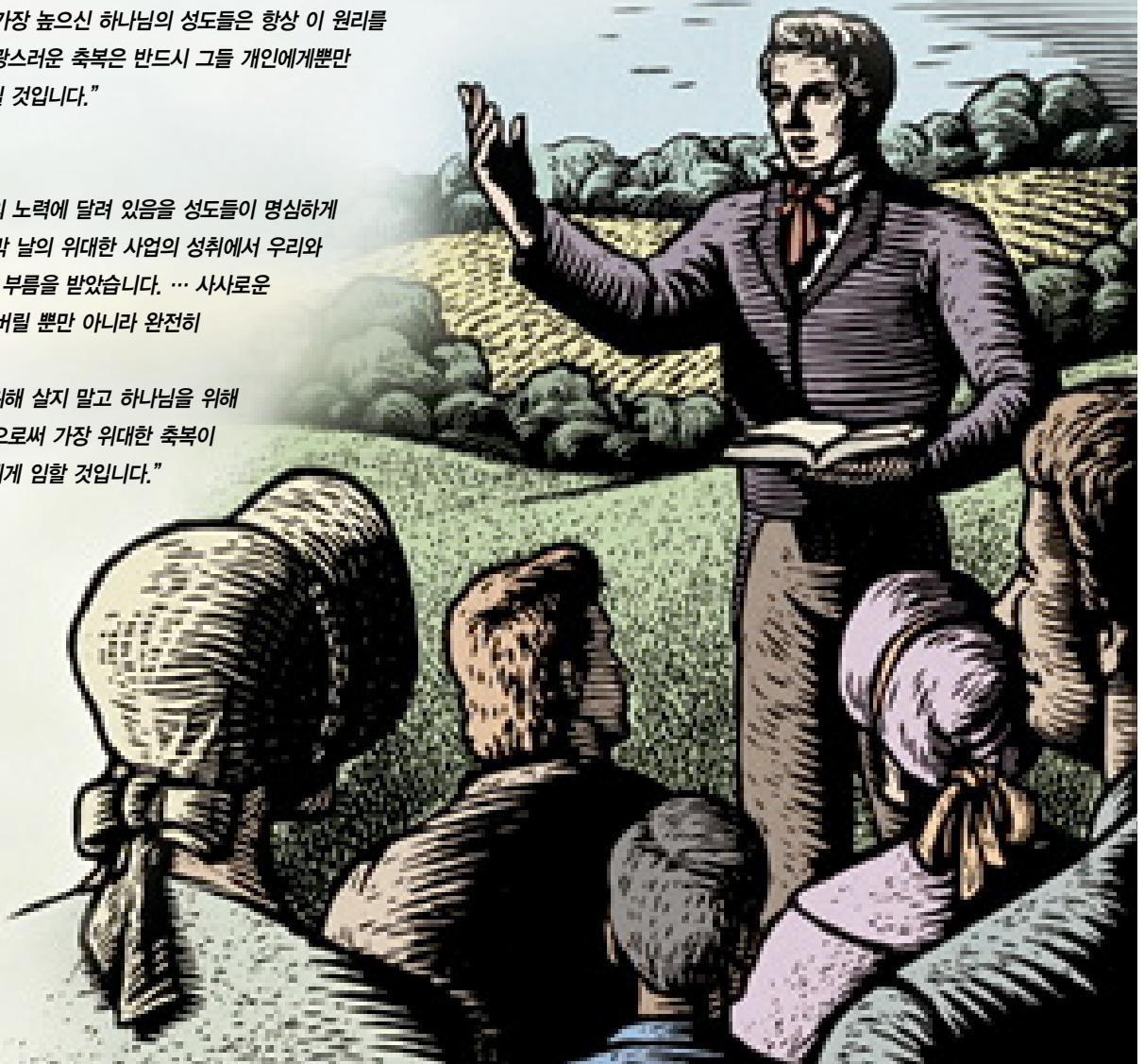
“위대한 일은 각 개인의 노력에 달려 있음을 성도들이 명심하게 하십시오. 그들은 이 마지막 날의 위대한 사업의 성취에서 우리와 성령과 더불어 동역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 사사로운 모든 이기심을 땅에 묻어 버릴 뿐만 아니라 완전히 소멸시킵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장 위대한 축복이 현세와 영원을 통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단합이 주는 축복

“함께 하는 행동과 단합된 노력을 통하여 우리는 마지막 날의 위대한 사업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 나아가 우리의 세상적, 영적 이익은 크게 증가할 것이며, 하늘의 축복은 막힘 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멜기세덱 신권 및 상호부조회 교과 과정, 2007년), 274~276, 278쪽에서 발췌





조셉이 되어 보기

나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드는 것에 그다지 흥미가 없었다. 하지만 내 생애를 변화시킨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다.

리카르도 레이에스 빌라타

나는 평생 조셉 스미스에 관해 배워 왔다. 나는 그 이야기가 참되다고 믿었는데, 그것은 나에게 그 이야기를 가르쳐 주었던 분들을 신뢰했기 때문이었다. 만일 선지자 조셉에 관해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나는 선지자 조셉을 옹호할 텐데, 그 이유는 그에 대한 간증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배운 원리에 따라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모든 것이 바뀌게 된 것은 우리 와드가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의 일로팡고 스테이크 문화 행사에서 특별 공연을 하기로 지명되었을 때부터였다. 친구들과 나는 재미난 촌극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청남 회장님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우리가 선지자 조셉이 경험한 것들 중 일부를 연극으로 만드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우리는 그 생각이 별로 달갑지 않았다. 친구들과 나는 다른 모든 사람이 재미난 무용이나 촌극을 공연할 것임을 알고 있었고, 우리만 다른 종류의 것을 하는 것은 난처한 일이었다. 우리가 구식 의상을 입고 진지한 연극을 공연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웃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본 적이 있었고, 사실 나도 그런 상황을 비웃던 사람들 중의 하나였다. 하지만 우리 청남 회장님은 만일 우리가 열심히 조셉 스미스의 이야기를 준비해서 공연한다면 비웃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래서 그 다음 두 달 동안, 우리는 조셉 스미스 이야기에 매달렸다. 첫번째 시현 영화를 수도 없이 보아서 영화에 나오는 모든 대사와 상세한 부분까지 외울 정도가 되었다. 우리는 성스러운 숲과 그 위로 열린 하늘을 나타내는 거대한 배경 그림을 그렸다. 우리는 여러 장의 금판을 만들었고, 또 소품으로 사용할 성경책과 혼들의자를 구했다. 피아노를 연주할 줄 아는 한 친구는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기도”(찬송가, 24장) 찬송가를 연주하여 녹음했다. 심지어 우리는 숲에서 노래하는 새 소리와

조셉이 나뭇잎을 밟을 때 나는 발자국 소리까지도 녹음했다. 우리가 맡을 역할을 정하기 위해 제비뽑기를 했는데, 내가 뽑은 역할은 바로 조셉 스미스였다.

드디어 공연하는 날, 우리의 예상대로 진지한 공연을 하는 팀은 우리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 차례가 되기 전에 우리는 함께 모여 모든 일이 잘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그런 뒤 내 인생을 바꾸어 놓은 일이 일어났다.

내가 무대로 나갈 순서였다. 숲을 그린 무대 배경이 내 앞에 있었다. 나는 그 무대 배경을 향해 걸어갔고, 미리 녹음된 찬송가가 배경 음악으로 흘러나왔다. 그때 내 가슴속에서 무엇인가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찌된 일인지 내가 공연하고 있는 그 사건이 정말로 일어났었다는, 나보다 어렸던 한 소년이 실제로 이런 경험을 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기도하는 장면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입을 열 수가 없었다. 그것은 악의 영향력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어떤 강력한 힘이 조셉의 기록이 참되다는 것을 내 가슴에 증거해 주었다. 나는 조셉 스미스에 대해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고, 그에 대한 커다란 사랑이 내 안에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관객 중 몇몇 사람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우리가 재현하고 있던 그 공연 내용의 신성한 진리에 관해 영이 분명히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이후 내가 선교 사업을 했을 때, 나는 여전히 교회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옹호했지만, 그것은 단순히 그래야 하기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그에 관해 간증한 이유는, 선지자 조셉이 말했듯이, “내가 그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었기에, 나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조셉스미스-역사 1:25) ■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각각의 경륜의 시대는 특별한 교훈을 갖고 있어, 우리는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위해 준비할 때 우리의 개인적 계획에 그 교훈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계획과 준비도 없이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경험들을 우연에 내맡기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전공이 무엇이나고 물을 때 종종 이런 점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들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결정하려고요.”라고 말합니다. 가족이나 개인이 건전한 재정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자신들의 수입보다 더 많이 소비하면서 부채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활동과 교습, 클럽과 운동에 지나치게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 단체에 참여하는 것은 분명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적절한 계획을 세우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활동들에 빠르게 빠져들 수 있습니다. 계획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시야를 잃게 됩니다.

우리는 경전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에 관한 궁극적인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모세서 1장 3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보라,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것이 곧 나의 일이요, 나의 영광이니라.” 속죄의 회생을 포함하고 있는 그분의 위대한 계획은 모든 사람에게 불멸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신권의 은사와 권능을 통해서, 그분의 계획에 충실하며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은사인 영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14:7 참조) 경전에서 이 계획에 관하여 언급되어 있는

구절들을 무수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계획을 따르는 과정의 역사는 그 계획이 완전하고 일관성이 있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경륜의 시대라 불리는 기간 동안에 그분의 자녀들에게 복음 계획에 관하여 신중히 가르치셨습니다. 경륜의 시대란 “주가 권세를 지닌 종을 지상에 적어도 한 사람 두어 거룩한 신권의 열쇠를 갖게 한 시기[로]…”

“... 주가 복음의 경륜의 시대를 조직할 때, 복음이 새롭게 계시되어서 그 경륜의 시대의 사람들은 구원의 계획에 관한 지식을 위해 과거의 경륜의 시대에 의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¹

각각의 경륜의 시대는 특별한 교훈을 갖고 있어, 우리는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위해 준비할 때 우리의 개인적 계획에 그 교훈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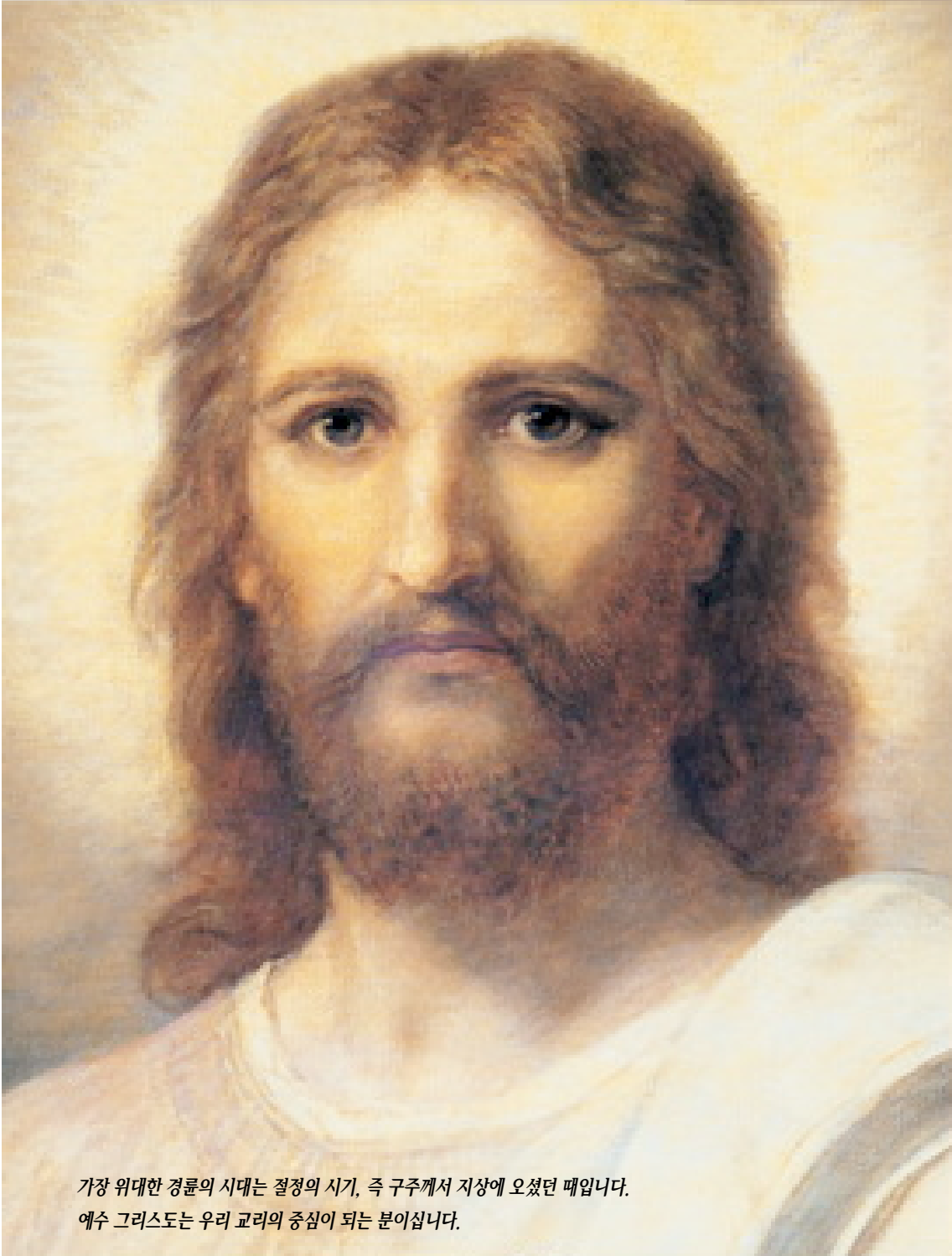
아담의 경륜의 시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처럼 되라

첫 번째 경륜의 시대에 주님은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셔서 그 둘을 지상에 놓으셨으며, 그들에게



아담

오른쪽: 그림스드 상, 영인권의 표현, C. Hanson Copy Co. 재: 08, 원작: 동양에 있는 아담과 이브, 로널드 브루스 배리.



복음의 경륜의 시대로부터의 교훈

아담의 경륜의 시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처럼 되라

에녹과 노아의 경륜의
시대: 악을 이기고 의를
선택하라

아브라함의 경륜의 시대:
성약을 맺고 지키라

모세의 경륜의 시대:
주님의 선지자를 따르라

절정의 시기: 너희 빛이
비치게 하라

때가 찬 경륜의 시대:
충만한 복음을 기뻐하라

가장 위대한 경륜의 시대는 절정의 시기, 즉 구주께서 지상에 오셨던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리의 중심이 되는 분이십니다.



에녹



노아

선택할 기회를 주셨습니다.(모세서 3:17 참조) 그들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을 받았는데, 이는 그들이 열매를 먹는다면 동산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먹을 경우 그들은 필멸의 존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열매를 먹었습니다.

타락은 재앙을 불러오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수나 사고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미리 계획된 부분이었습니다. 타락의 결과로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이해하게 된 반면 그 대가로 유희와 비참함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쓴맛을 알지 못하면, 달콤한 맛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니파이후서 2:15 참조) 우리가 발전의 다음 단계를 거쳐 좀 더 하나님 아버지처럼 되기 위해, 우리에게는 필멸의 세상을 통한 수양과 순화가 필요했습니다.

이 첫 번째 경륜의 시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 자녀입니다. 필멸의 세상에서 태어날 때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육신을 받습니다.(창세기 1:27 참조) 만일 우리가 필요한 의식을 받고, 성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승영을 얻어 그분처럼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기도를 통해 그분과 대화하고 영감과 계시를 통해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배웁니다. 우리 인생의 계획에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꾸준하고도 규칙적인 대화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에녹과 노아의 경륜의 시대: 악을 이기고 의를 선택하라

두 번째 경륜의 시대는 “하나님과 동행”(창세기 5:24)했던 에녹의 시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시온성을 세웠으며, 그 성은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얻을 수 있는 의로움의 강력한 상징이 되었습니다.(모세서 7:18~21 참조)

그 다음은 노아의 경륜의 시대입니다. 노아는 매우 사악한 시대에 살았으며,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외쳤으나,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홍수가 닥쳤을 때,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목숨을 건졌습니다.(창세기 7:23 참조)

두 번째 및 세 번째 경륜의 시대는 악을 이기고 선을 택할 때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큰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에녹과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의로움의 결과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노아를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죄인에게는 파멸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두 경륜의 시대는 우리에게 선하고 건전한 것을 추구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인생을 설계할 때, 우리가 지상에서 찾을 수 있는 선을 최대한 많이 흡수하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의 많은 부분을 매일 경전을 상고함으로써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륜의 시대: 성약을 맺고 지키라

그 다음 시대는 아브라함의 경륜의 시대입니다. 아담, 에녹 및 노아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주님으로부터 신성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주님은 성약-또는 구속력 있는 확고한 계약-을 아브라함과 맺었습니다.

“네 나라와 네 친척과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하시니라.

“또 내가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고 내가 네게 한량 없이



복을 주어 네 이름을 모든 나라 가운데서 크게 할 것인즉, 너는 네 뒤를 이을 네 자손에게 복이 되리니,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이 성역과 신권을 지니고 모든 나라에게 전하리라.

“또 내가 네 이름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리니,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네 이름으로 불리울 것이요, 네 자손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그들은 일어나 너를 그들의 조상으로 찬양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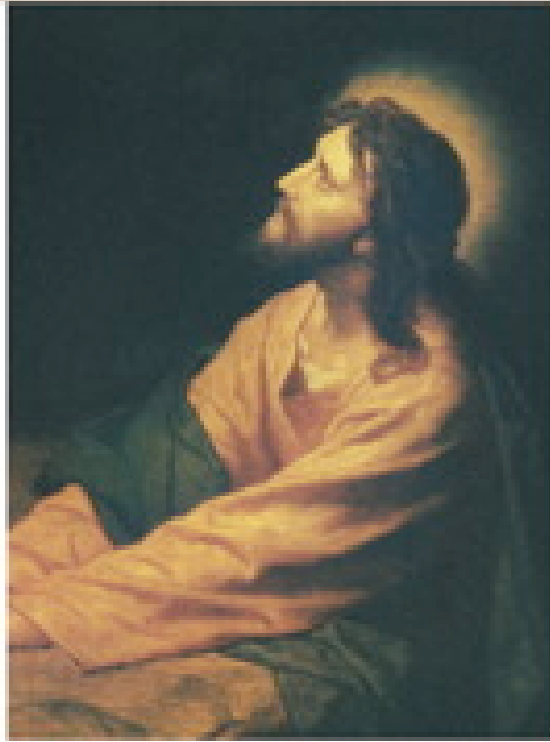
“또 나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이는 곧 네 신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그리고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이는 곧 네 신권이라,) 이는 이 권리가 너와 네 뒤를 이을 자손(말하자면, 실제 자손 곧 몸의 자손) 가운데 계속 이어지리라는 약속을 네게 줄이니,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음의 축복으로 복을 받을 것인즉, 구원의 축복 곧 영생의 축복이니라.”(아브라함서 2:3, 9-11)

후기 성도는 성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계약을 맺었으며, 이 계약에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그분의 율법과 계명에 순종한다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계획에는 성약을 맺고 지키는 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지니기에 늘 합당한 생활을 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경륜의 시대: 주님의 선지자를 따르라

모세는 이제껏 살았던 가장 위대한 사람들



지도력을 발휘하려면 우리는 생활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 (1910~2008) 우리가 성공을 이루기 위해 시간을 배분하고 균형 있게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하는 책임을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온 인류를 위한 속죄의 희생을 치르기 위해 돌아가셨고, 매장되었으며, 삼일 만에 일어나시어 사망이 영원한 권능을 갖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불멸을 기뻐하고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조셉 스미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고 대화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6:13 참조) 그는 인류를 위해 십계명에 담긴 큰 율법을 받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및 20장 참조) 주님이 주신 여러 교훈을 통해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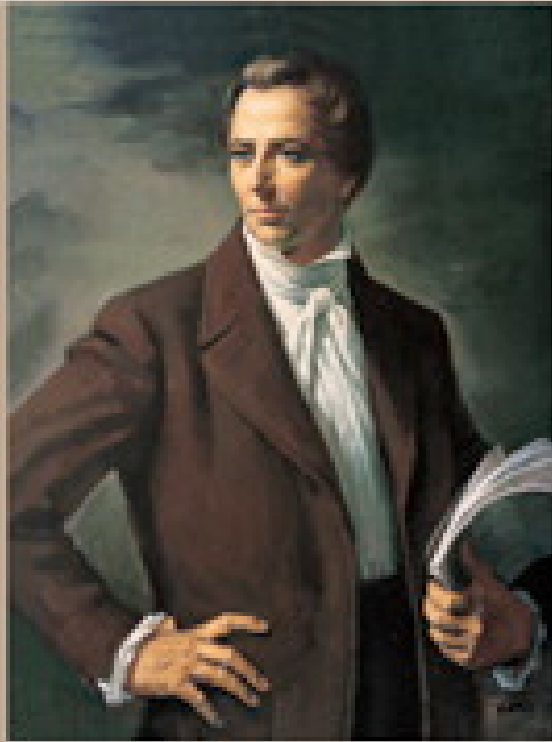
우리 또한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가족에 대한 책임
- 고용주에 대한 책임
- 주님의 사업에 대한 책임
- 우리 자신에 대한 책임. 이 책임은 특히 저에게 흥미로운 것입니다. 힝클리 회장님은 우리가 생활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휴식, 운동, 오락, 공부, 명상, 그리고 성전 예배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²

모세의 경륜의 시대는 우리가 선지자의 인도를

우리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라는

놀라운 시기,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게
회복된 때에 살고 있습니다.



따르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을 지상에 세우는데 좀 더 효과적인 도구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그에 대해 우리를 준비시켜 줍니다.

절정의 시기: 너희 빛이 비치게 하라

물론 가장 위대한 경륜의 시대는 절정의 시기, 즉 구주께서 지상에 오셨던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리의 중심이 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저 죄 없고, 선하고, 사랑이 많으셨던 분이상의 존재이십니다. 그분은 단순한 의미의 교사를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한 인간으로서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셨습니다. 그분은 온 인류를 위한 속죄의 희생을 치르기 위해 돌아가셨고, 매장되었으며, 삼일 만에 일어나서 사망이 영원한 권능을 갖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불멸을 기뻐하고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구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는 세상의 빛이며 우리의 빛이 다른 사람 앞에 비치게 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14-16 참조) 우리는 그분의 복음을 받는 축복을 받았습시다. 여러분의 빛이 비치게 하여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관해 더 많이

배우고자 하는 소망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때가 찬 경륜의 시대: 충만한 복음을 기뻐하라

우리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라는 놀라운 시기,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게 회복된 때에 살고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27:13 참조) 또한 우리 세대는 과거의 모든 경륜의 시대로부터 유익함을 얻어, 이를 토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 오셨는가를 이해하면서 우리 생활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 시대에 걸쳐 그분의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왔습니다. 그 계획은 태초부터 완전했으며, 우리가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다가올 영원한 세상에서 그분과 함께 사는 기회를 얻을 때까지도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탁월한 사람이 되도록 계획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어중간한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할 때 여러분은 정말 많은 분야에서 완전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풍성한 유산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의 원리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을 이루는 가운데 복음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계획 아래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고 또 구원을 추구하겠다는 소망을 지닐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

2007년 10월 30일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가졌던 영적 모임에서 발췌.

주

1. 경전 안내서, "경륜의 시대", 또한 www.lds.org/GospelLibrary에서 "Scripture"를 선택해도 볼 수 있다.
2. 고든 비 힝클리,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기쁘게 여감",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7년 6월 21일, 22~23쪽.

그냥 보기만 한다고요?



클릭하세요!

외설물은 물어뜯습니다-언제나

(모로나에서 10:30 참조)

가족 중에 혼자만 회원으로 지내는 것

...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 혼자가 아니다.

켈리 윌리엄스

나는 어려서부터 감리 교회에 다녔다. 우리 가족은 보통 성탄절과 부활절에만 교회에 참석했으나,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늘 알고 있었다. 형과 나는 어머니와 함께 기도를 드리곤 했다.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가르쳐준 것들은 내가 장래에 배우게 될 것들에 대해 나를 준비시켜 주었다.



6학년 때에 나는 부모님이 곧 이혼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마음이 많이 아팠고 몹시 외로웠다. 친구인 코트니 역시 그녀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었다. 우리는 곧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코트니와 함께 내 침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그녀가 처음으로 내게 교회에 대해 언급했다. 코트니는 교회에 관해 상세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일요일에 자신과 함께 교회에 가고 싶은지 물어보았다. 처음에는 그녀와 가끔씩 가기 시작하다가 곧 매주 일요일 교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열두 살이 된 후에는 상호 향상 모임에 참석했다. 교회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그 느낌이 좋았다.

중학교 1학년 때에 코트니와 또 다른 좋은 친구였던 오브리가 나를 선교사에게 소개했다. 선교사들이 영을 느끼는 것에 관해 이야기할 때 나는 그 말의 의미를 금세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토론 이후에 나는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았다.

복음에 대한 간증은 있었지만, 침례를 받아도 괜찮은지 부모님께 여쭙보는 것이 정말로 두려웠다. 계속 교회에 다녔고 또 간증을 키워 주는 훌륭한 경험들을 했지만, 나는 침례에 관해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중요한 문제”를 2년 동안 미루기만 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는 세미나리에 등록했고, 11월까지 부모님께 침례에 관해 말씀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어머니께서는 내가 교회에 다닌 후로 더 좋은 쪽으로 변화되었다고 하시며 내가 정말로 침례를 받고 싶어한다면 그렇게 해도 좋다고 말씀해 주셨다.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거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런 다음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는데, 아버지는 그다지 기뻐하시는 눈치가 아니었다. 내가 침례 받아도 되는지 여쭙었을 때, 아버지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내가 먼저 다른 교회에 몇 군데 참석해 보면 좋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몇몇 다른 교회들에 참석해 보았고 거기에서 매우 올바른 삶을 살아온 훌륭한 몇몇 사람들을 만났다. 그러나 내가 후기 성도

예배당으로 들어갔을 때 느꼈던 느낌을 지울 수는 없었다. 2월에 나는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3월 7일에 침례를 받을 건데, 아버지께서 오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말씀드렸다.

아버지를 포함해 우리 온 가족이 참석했다. 온 가족이 그 자리에 함께 한 것은 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다.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멋진 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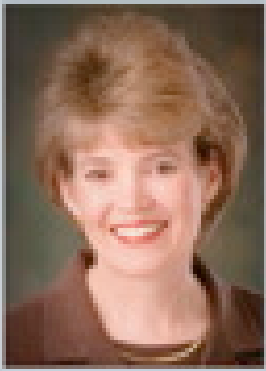
때때로 사람들은 내게 이렇게 묻는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혼자이면서도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활동적인 회원이 될 수 있느냐? 당신을 깨워 주고 교회나 세미나리에 참석하라고 말해 주는 사람도 없는데 말이예요. 당신은 혼자잖아요.”

글쎄, 답은 간단한 것 같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침례 받은 이래로 내게는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었다. 가족 내에서 유일한 교회 회원으로 지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요한복음 14:16~18 참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게 하셨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잊을 수 있겠는가?

인생은 고달프고, 우리는 누구나 힘이 빠지고 신앙이 약하다고 느끼는 시기를 거친다. 그러나 만일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즉 하나님 아버지에게 충실하고 또 연구와 기도를 통해 그분과의 관계를 발전시킨다면, 우리는 그런 시기를 잘 헤쳐나갈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다. “내가 너희 앞서 나아갈 것임이라. 나는 너희 오른쪽에도 왼편에도 있을 것이요, 나의 영은 너희 마음속에 있을 것이요, 나의 천사들은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받쳐 주리라.” (교리와 성약 84:88) ■



새로운 개종자가 굳건히



수잔 더블류 태너
2002~2008년에 본부 청년 회장으로 봉사했음

우리 모두는 새로운 회원의 활동 유지, 즉 그들이 지속적으로 활동적이 되도록 돕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끊임없이 그분께로 되돌아가는 지속적인 개종의 과정입니다.

저는 언젠가 남편과 함께 브라질 남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남편이 선교사로 봉사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모임에 참석했을 때, 한 젊은 어머니가 현관에서 우리를 맞으며 자신이 모임에서 저를 위해 통역을 할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들뜬 마음으로 제 남편을 보더니 “태너 장로님, 장로님은 오래 전에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분이세요. 당시에 저는 겨우 걸음마를 하는 아기였지만, 우리 가족의 첫 침례와 관련해서 장로님의 이름을 들으며 자랐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세월이 흘렀어도 그녀의 가족 모두가 교회에 한결같이 충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감격스런 재회였습니다!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은 청중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복음을 가르친 사람들이 여전히 충실히 남아 회중 여기저기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간증을 전할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그들이 여전히 충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물론경의 이야기 중에서 엘마가 여행을 하던 중에 그의

절친한 친구들이었던 모사이아의 아들들과 재회하는 부분이 생각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 모사이아의 아들들은 천사가 처음 엘마에게 나타났을 때 그와 함께 있었던지라, 그러므로 엘마가 그의 형제들을 보고 심히 기뻐하였더라. 또 그의 기쁨을 더욱 더하게 한 것은, 그들이 아직도 주 안에서 그의 형제였음이었요”(엘마서 17:2, 강조 추가)

마찬가지로 제 남편도 그날 밤 브라질에서 “아직도 주 안에서 그의 형제와 자매인!” 과거의 절친한 친구들을 만났던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개종자가 교회에 남아서 “진리의 지식에 있어 강해져 있[는]”(엘마서 17:2) 모습을 보는 것, 이것이 모든 충실한 선교사들의 소망입니다. 자녀들이 신앙에 충실하게 남는 모습을 보는 것은 모든 충실한 부모들의 소망입니다. 이것은 또한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이 돌보는 회원들에 대해 갖고 있는 소망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에 대해 갖고 계시는 사랑에 찬 소망일 것입니다. (모세서 1:39 참조)

길 잃은 사람들을 찾음

저는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이 길을 잃을지라도 그들에 대한 사랑을 얼마나 자주 표현하시는지를 생각할 때 감명을 받습니다. 특히 그들이 길을 잃을 때 그분은 더 자주 사랑을 보이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 즉 양, 동전, 탕자 등에 관해 구주께서 드신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참조)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다닙니다. 여인은 잃어버린 은화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찾습니다. 아버지는 제멋대로인 아들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누가복음 15:20) 이와 마찬가지로 감람나무의 비유에서 우리는



태너 지메의 사진: Bessie Photography, 사진: 심화, 랜디, 앙스, 심화, 스티브 크롬

남도록 도움



신

회원과 길을 잃고 방황하는 회원들 모두에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는 친구,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길을 잃은 사람들에 대해 주님께서 인내하시는 사랑을 보게 됩니다. (야곱서 5장 참조) 거듭해서 포도원의 주님은 “내가 이 나무를 잃게 됨은 내게 슬픈 일이라.”라고 탄식하십니다. (야곱서 5:7, 11, 13, 32) 이사야서 곳곳에서 주님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이사야 49:16)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잊지 않으실 것이라고 안심시켜 주십니다.

에스겔서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에스겔 34:16)

우리가 활동 유지와 재활동화의 노력에 힘쓸 때, 우리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진, 또는 탕자의 처지에 놓인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찾아나서는 사랑에 찬 사업에 주님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감

교회의 신회원들이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큰 변화에 적응하려 노력할 때, 그 과정은 힘들고 또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회원은 이 힘든 변화의 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구도자인 우리가 교회 회원이 될 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온 것을 알고 놀라게 됩니다. 그것은 그

세계만의 전통과 문화와 언어를 가진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새로운 세계에 들어온 뒤 우리를 인도해 줄 사람이나 근원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¹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1910~2008) 신회원과 길을 잃고 방황하는 회원들 모두에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거듭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친구,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모로나이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여져 침례를 받... 게 된 후에는, 그리스도의 교회 백성 가운데 헤아림을 받았고, 그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하여 그들을 바른 길에 있도록 지키며 ... 그들의 이름을 취하였느니라.”(모로나이서 6:4)

앞서 말씀드린 브라질 여행 동안, 저는 많은 청녀들을 “기억하고 양육하고자” 그들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 중에는 뜨거운 간증을 가진 청녀도 있는 반면에 교회에서 저활동 상태에 있는 청녀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막론하고 제가 만나는 모든 청녀들에게 청녀 주제를 암송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만난 청녀들은 모두 그것을 암송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어떤 청녀 가치관이 자신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지,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청녀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답할 때마다 저는 영을 느꼈고, 교회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청녀의 마음속에도 최소한 신앙의 불씨가 아직 남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사랑을 주며, 그 작은 신앙의 불씨를 보살피고 양육해 준다면, 그 빛은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책임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몸을 돌보듯이 다른 사람의 영적인 성장과 복리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부모, 지도자, 친구들이 이 과정에 도움을 주어야 하지만, 새로운 개종자, 의문을 품은 청소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도 스스로 노력해야 할 개인적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책임의 수행은 개인 복음 공부를 통해 가장 잘 이루어집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그 해 여름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영적으로 중요하던 시기였고, 많은 새로운 개종자들처럼





저도 복음 안에서 나아갈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제 해결책은 날마다 물문경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는 것이었는데, 여러 시간 동안 물문경에 열중해 그것을 읽었던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아직도 당시 영으로 충만했던 몇 가지 경험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제 간증이 양육되고 성장하는 데 기초가 되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양육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는 그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구주께서는 사도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누가복음 22:32)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교회 부름은 회원들이 다른 사람들을 강화할 수 있게 해 주며, 바로 그 봉사를 통해 그들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제 자녀들이 십대였을 때 그들은 가끔 상호 향상 모임이나 다른 모임에 참석하고 싶어 하지 않았으며, 그럴 때면 저는 그들의 책임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모임에서 무엇인가를 얻기 때문에 항상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너희에게 교회가 필요하듯, 교회는 너희가 필요하단다.”라고 자주 말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개종자와 저활동 회원은 그들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모두를 위한 일

우리 모두는 새로운 회원의 활동 유지, 즉 그들이 지속적으로

활동적이 되도록 돕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끊임없이 그분께로 되돌아가는 지속적인 개종의 과정입니다. 엘마는 그것을 큰 변화라고 불렀습니다. (엘마서 5:14 참조) 우리는 구도자, 청소년, 저활동 회원, 또는 심지어 활동 회원을 막론하고 항상 누군가를 개종시키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업, 즉 그분의 자녀들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사업을 돕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모세서 1:39 참조)

제 남편은 자신의 선교 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개종은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그것은 심지어 병든 사람을 낫게 하거나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다. 왜냐하면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언젠가는 다시 아플 수 있고 결국 죽게 되지만, 개종의 기적은 영원히 지속되며 개종자 자신뿐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까지도 영원무궁토록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개종의 기적을 통해 온 세대가 치유를 받아 죽음에서 구속되는 것이다.”

잃어버린 자를 찾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는 일에서 주님과 함께 일합시다. 그렇게 한다면, 주의 큰 날이 임했을 때, 제 남편이 그랬듯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주 안에서 여전히 우리의 형제요 자매임을 발견하고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

주

1. 고든 비 형클리, “양을 찾고 먹이랴”,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122쪽에서 인용.

새로운 개종자로 성공하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정의 손길을 내밀고,
봉사에 참여하며, 경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할 때,
우리의 자신감은 커질
것이다.

게일 에스 아일리프

내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참석했던 겨울 아침은 이례적으로 화창하고 상쾌했다. 집회소로 가면서 나는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이 내 생활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다행히도 나 같은 개종자들이 복음 안에서 강해지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우리는 우정을 증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해야]”(니파이후서 32:3)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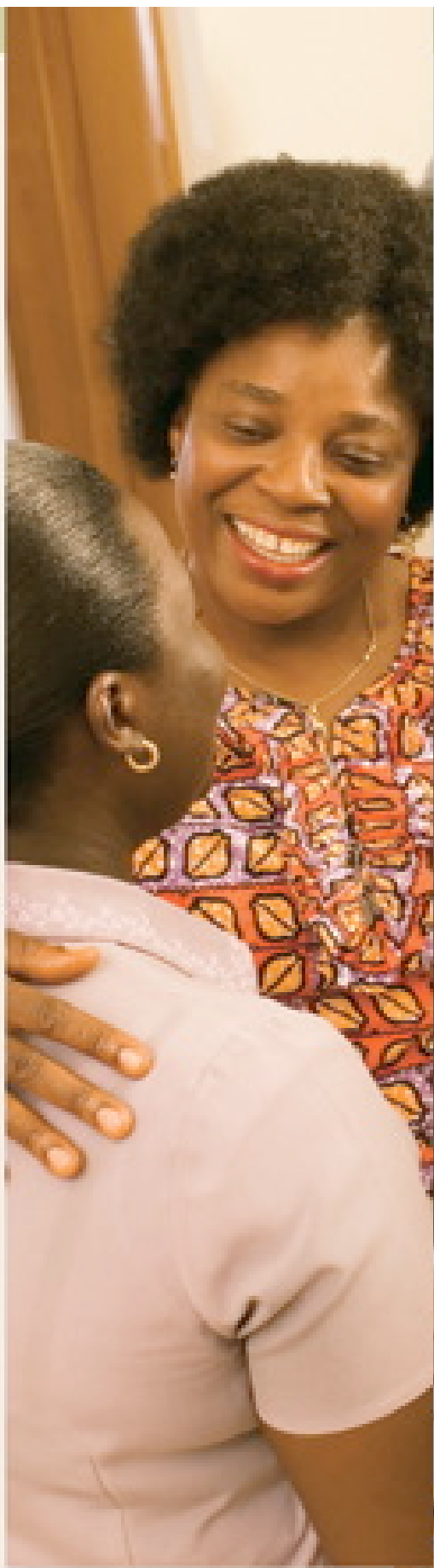
우정 증진

교회의 모든 회원들, 특히 새로운 개종자들은 자신들을 도와 발전시켜 줄 친구들이 필요하다. 우정을 키움으로써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회원들은 개종자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다. 내가 침례 받기 전에, 한 친절한 자매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 집회소를 가로질러 나를 향해 걸어오셨다. 나는 그분이 내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끼게 해 주시려고 일부러 나에게 와 주신 것에 감동 받았다. 다른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로 친절히 대해 주셨다. 교회 회원들이 개종자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를 개종자들이 깨닫게 되면, 그들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교회 공과반 교사들도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인다. 우리 와드의 복음 원리반 교사는 내게 영감의 원천이었다. 종종 나는 공과를 들으면서 마치 구주께서 내가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하시며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가정 복음 및 방문 교사들도 교회 회원들을 돌아보고 축복한다. 그들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기쁘게 맞아들이고, 감사를 표하고, 또한 그들의 봉사에 대해 주님께 감사를 표하기를 바란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님(1906~2009)





개종자를 보살핌

“모든 개종자에게는 세 가지, 곧 친구,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모로나이사 6:4)에 의한 양육이 필요합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1910~2008), “개종자와 청남”, 리아호나, 1997년 7월호, 47쪽.

이렇게 가르쳤다. “감사의 마음은 ...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축복하여 우리가 하던 일을 계속 수행하며 요청 받은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행하게 해 줍니다.”¹

개종자들 또한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손길을 내밀 때 축복을 받는다. 어느 날 나는 길장에 커다란 눈알 하나가 그려진 인사 카드를 샀다. 그 안에는 “항상 저를 지켜봐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친절하게 대해 주셨던 와드의 한 자매님에게 그 인사 카드를 보냈다. 그렇게 했을 때, 나는 그녀에 대해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느꼈다.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감사를 표하고, 기도할 때 가능하다. 영은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큰 희생에 대해 우리가 합당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교회에서 봉사함

대체로 침례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신회원들은 와드나 지부에서 더 큰 역할을 맡아 봉사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된다. 감독이나 지부 회장이 부름을 줄 것이다. 어떤 신회원에게는 이 시기가 조금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다.

내가 상호부조회 서기로 첫 부름을 받았을 때, 나는 “이런 중요한 책임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질 수 있지?”라며 의아해 했다. 제일회장단 제1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다. “여러분은 압도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부름에 부적합하다는 느낌을 통해 [사탄은]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 그러나 여러분은 자신의 능력 이상의 힘을 얻을 수 있으며 여러분은 결코 홀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²

얼마 후 상호부조회 회장님은 내가 회장단 모임에서 제안했던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영감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나는 어리둥절해 하며 “제가요?”라고 반문했다. 그녀는 내가 영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친절하게 확인해 주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부지런히 일할 때, 그분이 부르시는 사람들을 그분이 영화롭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함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를 격려해 주실 것이라는 점을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마도 경전 공부일 것이다. 경전은 주님이 “모두에게 그에게로 나아와 그의 선하심에 참여하도록 권하시며, 또 그는 그에게로 나아오는 자는 ... 아무도 거절하지 아니하신다”(니파이후서 26:33)라고 가르치고 있다.

일부 신회원들은 다른 회원들의 지식과 간증에 놀랄 수도 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치는 방법은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는]”(니파이후서 28:30) 것이다. 우리 각자는 계속 행하면서 배워야 한다. 경전에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처음에는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셨으나 계속하여 은혜에 은혜를 받으시더니, 드디어는 충만함을 받으시더라. 그리고 이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셨으니, 이는 그가 처음에는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셨[다]”(교리와 성약 93:13~14) 나와 있다.

그 지식은 그분에 대한 나의 외경심과 존경심을 깊게 해주었다. 그분은 내가 경험했던 고통과 시험과 역경과 외로움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계신다. (앨마서 7:11 참조) 나는 완전한 믿음을 갖고 그분께 향할 수 있다. 경전은 우리가 어디에 있던 우리에게 대한 구주의 사랑과 이해와 동정심은 완전하고 끝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정의 손길을 내밀고, 봉사에 참여하며, 경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할 때, 우리의 자신감은 커질 것이고, 우리는 자신이 바라는 대로 충실한 후기 성도가 될 것이다. ■

주

1. 데이비드 비 헤이트, “열 사람이 다 깨닫음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26쪽.
2. 헨리 비 아이어링, “자신의 부름을 수행하십시오”,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77쪽.

여성의 신성한 역할을 이해함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의 필요 사항에
맞는 성구와 인용문을
가르칩니다. 교리에 대한
간증을 전한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매들에게 그들이
느끼고 배운 것을 함께 나누도록
권유한다.

줄리 비 백,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행복의 계획에
대한 경전 구절들을 상고하고
연구함으로써 간증을 얻었습니다. 그
계획에는 그분의 딸들이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절반인 여성을 돌볼 책임이 있으며,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그것을 대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절반의 부분, 즉 이 세상에 생명이
태어나게 하고, 영혼을 양육하며, 성장을
촉진시키고, 다른 모든 것들에 영향을
주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위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거나 부인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역할이며 우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알고 있던 것들을 모두 기억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 특권을

위해 큰 전쟁에서 싸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책임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우리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이 임무에
우리의 힘을 쏟습니다.”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지구 창조의 기본적인 교리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에게 승영과 영생의
과정이 지속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머니나 아버지로서 하는
일들이 사회나 교회, 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헌이겠지만,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는 것만이 유일한 선의 척도는 아니며
주님 앞에서 받아들여지느냐를 결정하는
유일한 잣대도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주님과 성약을 맺은
모든 자매들은 영혼을 구하는 것과
세상의 여성들을 이끄는 것, 또한 시온의
가정들을 강화하는 것과 하나님의 왕국을
짓는 것을 도울 신성한 계명을 지니고
있습니다.”(“의로운 여성”, 리아호나,
2002년 12월호, 34쪽)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신성한 계획에 따라 남자와
여자는 완전과 충만한 영광을 향해 함께
발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성품과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들은 결혼 관계에 각자의
독특한 시각과 경험을 더하게 됩니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그러나 동등하게 기여하여 하나됨을

단합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성취될 수 없습니다.”(결혼은



그분의 영원한 계획에서 필수적입니다”,
리아호나, 2006년 6월호, 52쪽)

**실비아 에이치 얼리드, 본부 상호부조회
제1보좌:** 주님은 사랑, 동정심, 친절,
자애라는 신성한 특질과 속성으로
여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방문 교사로서
우리는 월례 방문을 통해 사랑과 친절을
베풀고 동정심과 자애라는 은사를
선물함으로써 각 자매들을 축복할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 개개인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우리 모두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고양시키고 보살필 기회가
있습니다.”(“내 양을 먹이라”,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113쪽)

스펜서 더블류 김블 회장(1895~1985):
“구주의 재림에 앞서 이 지상의 마지막
시기 동안 의로운 여성이 된다는 것은
특별히 고귀한 부름입니다. 오늘날
의로운 여성들의 힘과 영향력은 평온한
시대에서보다 열 배의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여성의 특권과 책임”, 성도의
벗, 1979년 4월호, 149쪽) ■

“저는 다른 사람이 저에게 술이나 중독성 있는 것들을 권할까 봐 두렵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싫다고 말하거나 그들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그런 것들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오’라고 말하겠다고 미리-바로 지금-결심하십시오. 만약 한 번 유혹에 굴복한다면 앞으로는 거절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려는 여러분의 모습에 존경을 표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먹고 마시도록 권하거나 요청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불쾌한 감정을 갖거나 화를 내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곁에 영을 간직하고 후회할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역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곁에 친구가 있다면 ‘아니오’라고 거절하는 것이 더 쉬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친구의 지지는 여러분이 집단에 용감히 맞서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의 표준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존중해 줄 친구들을 선택하십시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파티에 가게 된다면,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를 알아보십시오. 만약 불편한 느낌이 들거나 선뜻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곳에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저는 침례받고 난 뒤에 술과 담배가 있는 파티에는 더 이상 가지 않았습니. 하루는 친구들이 제게 “그러지 말고 가보자. 아무런 문제도 없을거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중독성이 있는 것들을 취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제가 교회에 다니고 있고 약속을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기에 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해 드려야 할 사람은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침례받을 때 그분과 맺은 약속들을 지킨다면 우리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룩센나 씨, 19세, 페루 리마



결심을 하십시오

저도 친구들을 실망시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유혹에 굴한다면 누구를 실망시키게 될지 스스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게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은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 한참 전에 미리 결정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중독성이 있는 약품이나 술 앞에서 ‘아니오’라고 말하며 그것을 거절하겠다고 제 자신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몇 번 거절을 하고 난 뒤, 저는 제가 한 결정으로 인해 더욱 존중받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 안 가서는 제게 술을 마시라고 권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제 친구들 중 한 명이 “아니, 캔터는 술을 마시지 않아.”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친구들이 제가 술을 마시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고 이해하기 시작하자 거절하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켈터 장로, 20세, 아이다호 포카텔로 선교부

대답들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교회의 교리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충실하게 남기 위해 용기를 가지십시오

올 해 초에 누군가가 저에게 중독성이 있는 것을 권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용기를 내서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믿고 있는 것에 충실하게 남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몇 주 후에 저에게 중독성이 있는 것을 권했던 그 남자는 제가 저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당히 맞서는 것을 보고 크게 감명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껏 그렇게 당당하게 거절하는 사람을 만나 본 적이 없으며, 그런 행동은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경험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범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16 참조)

메리 티, 16세, 미국 애리조나 주



굳건하고 흔들림 없이 생활하십시오

여러분의 또래들은 여러분이 당당히 '아니오' 라고 말하고

여러분의 표준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 여러분을 존경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표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이 굳건하고 흔들림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린디 에스, 15세, 미국 유타 주



지금 결정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중독성 약품이나 술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지금 결정한다면 그것들을 취하지 않기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떤 대답을 할 것인지에 대해 두 번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말씀에 대해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선교 사업에 관련된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챌러 에이치, 14세, 미국 앨라배마 주



용기를 가지십시오

저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경전을

읽고 상고하며 저의 간증을 강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됐을 때, 저는 "미안하지만 난 술을 마시지 않아. 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야."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제 표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저는 주님의 도움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고, 또한 자신감, 신앙, 건강, 그리고 높은 표준 등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디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친구들에게 '아니오' 라고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표준에 대해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굳건히 지킬 때, 여러분은 밝은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이명희, 17세, 한국 서울



강해지십시오

"여러분은 엄청난 유혹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기 있는 파티나 여흥의 장소에서, 인터넷에서, 영화에서, 텔레비전에서, 저속한 문학에서, 그리고 기타 여러 방법들로 간교하게, 강한 자극을 일으키며 물리치기 힘들게 다가옵니다. 포래 집단의 압력은 어찌면 감당하기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강해져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매혹적인 유혹에 굴복하기보다는 앞으로 올 결과들을 생각하며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고든 비 힐클리 회장(1910~2008), "원방에 세우는 기, 세상을 비추는 빛",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83쪽

다음 호 질문

"어떻게 하면 우리의 표준이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임을 친구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답변을 아래 주소 또는 이메일로 2009년 3월 15일까지 보내 주세요.

Liahona, Questions & Answers 3/09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여러분의 이메일이나 편지에는 다음 정보 및 동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성명 _____
생년월일 _____
와드(혹은 지부) _____
스태이르(혹은 지방부) _____

나는 답변과 사진의 인쇄를 허가합니다.

서명 _____
부모 서명(18세 미만인 경우) _____



아무도 모를 거야

스탠리 지 엘리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저는 미국 아이다호 주 벌리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그곳에 농장과 목장을 가지고 계셨으므로 저는 야외에서 일을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의 가족은 몇 대에 걸친 교회 회원이었고, 저는 신앙심 깊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 시절에, 저의 간증은 제가 갈망한 한 가지 기회로 인해 시험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고등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던 한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흥미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환학생이 되는 방법을 찾아보고 필요한 과정들을 알아 본 다음 지원했는데, 얼마 후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그 때 저는 열여섯 살이었습니다. 저는 1년간 독일어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지도 선생님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독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특별한 교환 프로그램은 학생의 모든 정보를 기꺼이 하숙을 제공하려는 가족들과 맞추어본 후 학생이 어느 나라로 갈지 정해 줍니다.

제가 뽑혔을 때, 저는 브라질로 가도록 정해졌고 저는 그것에 동의했습니다. 저는 상파울루에 있는 어느 훌륭한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고향에 있던 제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영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비록 여름 동안만 그곳에 있었지만 그것은 너무나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다.

브라질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몇몇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생에서 여러 가지를 실험해 보기를 원하는 연령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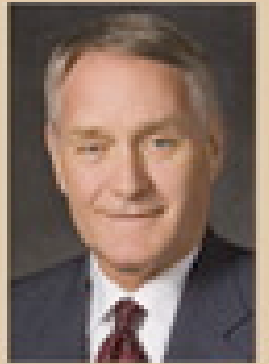
그들이 알게 된 여자아이들과 함께 재미있게 놀자고 저를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하숙하고 있는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저를 알지 못하는, 집에서 몇 천 마일이나 떨어진 나라에 있었습니다. 저에게 종종 함께 놀자고 권하던 친구들은 “아무도 모를 거야.”라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여러 모로 봤을 때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확실히 미국에 있는 저의 가족들은 아무것도 모를 것이었습니다. 저는 십대였고,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옹지 않은 일들을 하자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를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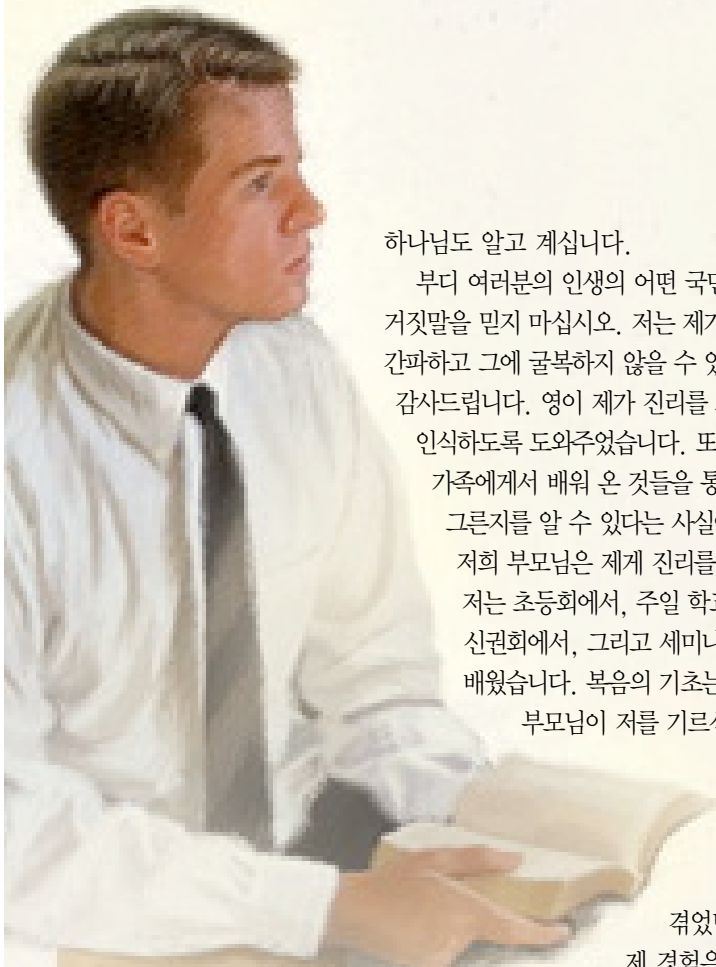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주님이 아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초대들을 거절했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 차서 반복해서 초대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한 번 거절해서 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제가 거절할 때마다 저는 유혹에 굴하지 말아야겠다고 더 굳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합리화

“아무도 모를 것이다”라는 말은 우리 삶에서 사탄이 우리에게 사용하는 합리화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저는 브라질에서 여름을 보내는 동안 제 스스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사탄의 거짓말을 믿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외설물과 같은 것들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아무도 모르는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종종 함께 놀자고 권하던 친구들은 “아무도 모를 거야.”라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또한 주님이 그것을 아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부디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국면에서건 그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저는 제가 그 거짓 논거를 간파하고 그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영이 제가 진리를 느끼고

인식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저는 제가 가족에게서 배워 온 것들을 통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에 의지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게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주일 학교에서, 아론 신권회에서, 그리고 세미나리에서 진리를 배웠습니다. 복음의 기초는 저의 가정에, 제 부모님이 저를 가르친 방법에, 그리고

교회

공과들에 있었습니다.

교환학생으로

겪었던 유혹에 관한

제 경험은 외부로부터, 즉

집요한 친구들로부터 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믿고 있던 것들에 관한 외적인 시련이었고 저는 굳건히 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겪게 된 다른 경험들을 통해, 저는 우리가 모든 면에서 시험받게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련들 중 몇몇은 내부의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물리쳐야 할 유혹이 우리의 고요한 마음과 정신에 자리잡을 때 옵니다.

주님을 시험해 봄

이러한 시험들 중 하나는 제가 집에서 떨어져 있는 동안 정직한 십일조를 내기로 선택할 때 찾아왔습니다. 매년 아버지는 저희를 십일조 결산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분은 저희가 십일조를 계산하는 것을 도와주셨고 저희들은 십일조를 냈습니다. 저는 성장하는 동안 늘 십일조를 내는 습관을 발전시켰습니다. 만약 그 때 여러분이 제게 물어보았다면 저는 제가 십일조에 관한 간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마친 후,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학금으로

지불되지 않는 경비들을 충당하기 위해 여름 동안 일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1학기를 마칠 때 즈음, 저는 어리석게도 한 해를 지내기 위해 벌여 놓은 돈을 다 써 버렸습니다.

2학기가 시작될 때, 저는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저는 12학점 이상을 듣는 정규학생이었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주일에 몇 시간씩 일했고 제 첫 번째 봉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 돈이 2주 후 다음 봉급을 받을 때까지 지내기 위해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 때 제 머릿속에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십일조는 어떻게 하지?” 저는 십일조를 내는 습관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그 전에는 항상 십일조를 낼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돈으로 다음 2주 동안 생활하기에 충분한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는 십일조를 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저는 주님께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약속하신 말라기 3장 10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저에게 온 응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다음 봉급을 받을 때까지 견딜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우선 십일조를 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2주일 동안 어려움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이 그분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너무나 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이 약속하신대로 행하셨습니다. 경전이 말해주는 것처럼 만약 우리가 십일조를 낸다면,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같은 기적이 남은 학기 내내 2주마다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 저는 제가 십일조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제가 내린 옳은 결정 덕분에 십일조에 대한 강한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가 장 어려운 시련들 중 몇몇은 내부의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물리쳐야 할 유혹이 우리의 고요한 마음과 정신에 자리잡을 때 옵니다.

다 음 봉급을 받을 때까지 견딜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우선 십일조를 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2주일 동안 어려움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행하십니다. 그에 따라 제 간증도 한 걸음씩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주님을 믿음

저는 여러분이 십대 시절 동안, 또한 여러분 스스로의 간증을 발전시켜 가는 동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어 보라고 권고합니다. 주님께서 무언가를 약속하실 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경전이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든 혹은 그분의 경전을 통해 직접 하시든 약속을 하실 때에는, 언제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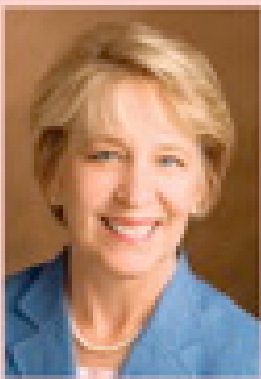
그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경전은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격려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는 구하는 이가 받고, 두드리는 이에 열릴 것임이니라.”(제3니파이 27:29)

저는 이런 저런 경험들을 통해 이 구절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의 시련이 외적인 것이든 내적인 것이든, 그분의 계획, 그분의 경전, 그분의 사랑 및 그분의 성신의 은사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



유아반에서 가르치고, 집에서 가르침



마거릿 에스 리퍼스
본부 초등학교 제1보좌

새로운 초등학교 유아반 교재를 특별하게 해 주는 여러 가지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중 하나는 유아반 연령의 어린이들이 보고, 듣고, 직접 해 보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복음 진리들을 배우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20개월인 찰리는 가정에서 하는 복음 공부에 열심입니다. 그는 구주의 그림을 가리키며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관해 배우는 또 다른 장소인 초등학교 유아반에 참석할 때면 아직은 조금 수줍음을 탑니다.

한편, 샘은 거의 세 살이 되었고 유아반에 참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반에서 여러 가지 초등학교 노래를 배웠고, 가정의 밤 시간에 그 노래들을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실 샘이 할머니와 함께 노래를 불렀을 때 할머니는 샘이 최소한 열 두 곡을 외워서 부를 수 있는 것을 보고 무척 놀라셨습니다.

찰리와 샘은 모두 그들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교회 조직인 유아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18개월에서 3세 사이의 어린이들이 그들의 복음 학습을 발전시킵니다. 새로운 초등학교 유아반 교재인 *너희의 어린 자들을 보라*는 유아반의 교사들과 가정에 있는 부모들이 어린이들에게 기본적인 복음 진리들을 가르치는데 훌륭한 자원이 됩니다.

유연한 교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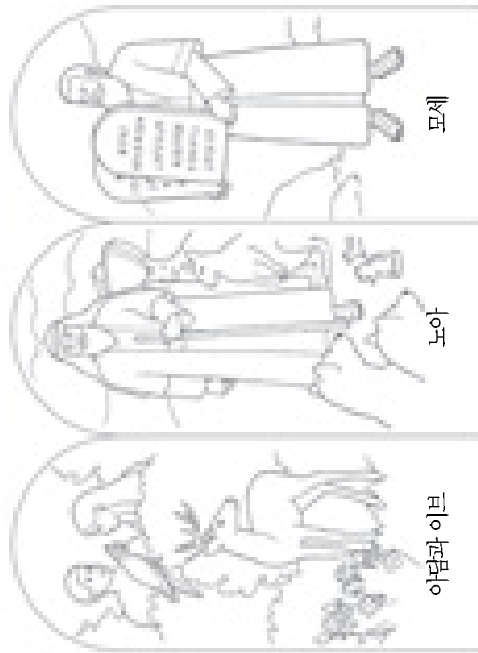
이 연령의 어린이들도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복음 원리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실재성과 사랑, 가족의 사랑, 기도의 힘, 첫 번째 시현의 진실성,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물들의 아름다움 등이 있습니다.

그들은 활동적이고, 사랑과 애정을 필요로 하며, 주의를 집중하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들은 또 언어적인 기술들을 습득하며 다양한 활동들을 즐겨워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배우고 있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한 한 저명한 의학 권위자의 말을 인용하셨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무엇이든 가장 잘 받아들이는 나이는 두 살 내지 세 살입니다.”¹

유아반 시간 동안, 어린이들은 음악 시간, 놀이 시간, 간식 시간, 그리고 공과를 통해 그 안에서 복음의 기본적인 교리들을 배웁니다. 새로운 유아반 교재의 공과들은 융통성을 가지고 이 연령대 어린이들의 필요 사항에 부합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각 공과는 교사를 위한 소개로 시작합니다. 소개는 참조 성구들을 포함하여 가르쳐야 할 교리를 간단히 설명합니다. 교재에는 가르침 제언도 있어서, 부모와 교사들이 유아반 연령대의 어린이들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고, 어린이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의 교수 경험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 알려줍니다. 공과에는 여러 가지 학습 활동들도 포함됩니다. 이 활동들은 어린이들이 교리를 듣고, 교리에 관련된 어떠한 것을 보고, 노래를 부르며, 신체적 활동을 하고, 교리에 관련된 무언가를 말해보도록 도와줍니다.

유아반의 지도자나 부모는 영감에 따라 순서를





각 공과는 공과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보충하기 위한 두 페이지의 시각 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아반 교사 및 가정에서의 부모들은 어린이들에게 기본적인 복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너희의 어린 자들을 보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Una de las formas más importantes de enseñar a los niños es a través de las historias. Estas historias ayudan a los niños a comprender mejor a su Padre Celestial y a su Plan para ellos. Estas historias también ayudan a los niños a comprender mejor a su Padre Celestial y a su Plan para ellos. Estas historias también ayudan a los niños a comprender mejor a su Padre Celestial y a su Plan para ellos.

Objetivo: Que los niños comprendan que su Padre Celestial tiene un plan para ellos.

Actividad: Leer y discutir la historia de la creació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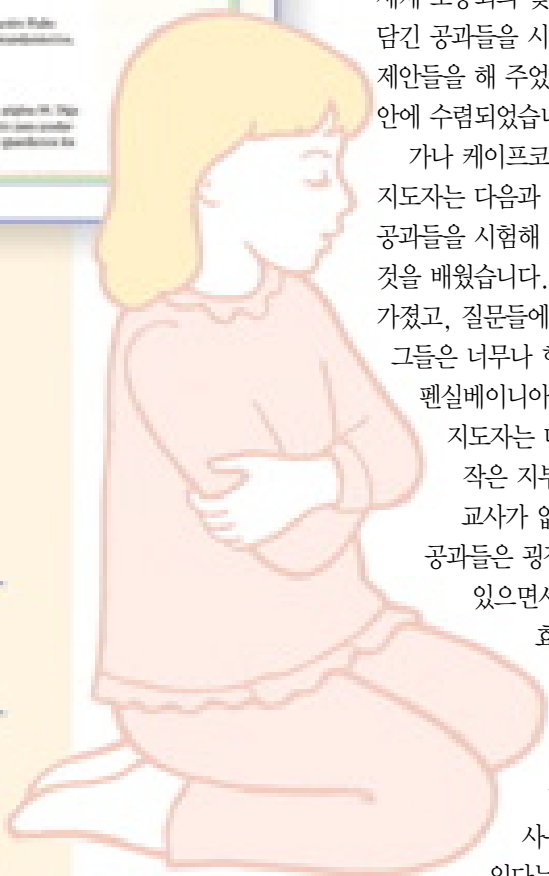
Material: Biblia, lápiz, papel.

Procedimiento: Leer la historia de la creación en la Biblia. Discutir la historia con los niños. Preguntarles qué les gustó de la historia y qué aprendieron de ella. Pedirles que dibujen una escena de la historia.

CONSEJOS PARA LOS ENSEÑANDES

Respetar el tiempo de los niños. Permitirles que expresen sus ideas y sentimientos. Usar ejemplos de historias que sean apropiadas para su edad.

가르침 제안들은 부모와 교사들이 아이들의 필요 사항에 맞게 어떻게 공과를 적용해야 할지를 알도록 도와줍니다.



바꾸어 공과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학습을 보강하기 위해 한 공과나 활동이 몇 주에 걸쳐 연속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한 주에 같은 공과를 두 번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필요 사항과 관심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시되어 있는 선택 활동들은 유아반 시간에 언제든지 몇 번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각 자료와 활동들은 교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공의 간증들

유아반 교재가 새롭게 개선되는 과정에서 전 세계 초등학교의 몇몇 유아반 지도자들이 그 교재에 담긴 공과들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제안들을 해 주었으며 그 제안들은 지금의 교재 안에 수렴되었습니다.

가나 케이프코스트 스테이크의 한 유아반 지도자는 다음과 같이 써 보냈습니다. “저는 공과들을 시험해 보면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이들은 이야기들에 흥미를 가졌고, 질문들에 대답했으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행복해 했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스크랜턴의 한 초등학교 지도자는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지부에 속해 있고 때로는 가르칠 교사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과들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준비할 수 있으면서도 여전히 아이들에게 효과적입니다.”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 위치한 로 페끄 스테이크의 한 지도자는 교사가 공과를 진행할 때 영의 인도를 받아서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겨져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유타 주 웨스트 조단의 한 지도자는 다음과 같이 써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손가락 인형들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직접 그들의 손가락 인형을 사용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잘 했고 저는 그 아이들이 가정의 밤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가르침 제언들도 저에게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부모와 유아반 지도자들을 위하여

유아반 연령의 아이들을 보살피고 가르치는 임무를 맡는 것은 부모와 초등회 지도자들의 특권입니다. 이 아이들은 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쉽게 믿으며, 배우는 데 열심이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행복해 합니다. 그들은 사랑의 환경과 복음의 빛 안에서 튼튼하게 성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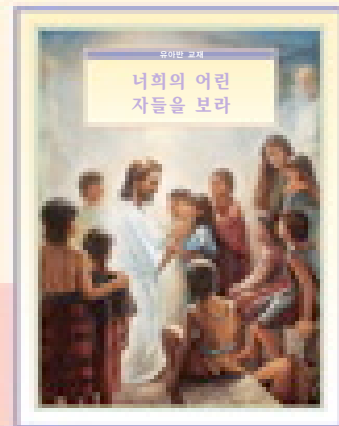
새로운 초등회 유아반 교재는 영감 및 간증과 함께 사용될 때 전 세계의 부모와 초등회 지도자들이 찰리와 샘과 같은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주

1. 글렌 제이 도만, 토마스 에스 몬슨의 “변하는 시대를 위한 변하지 않는 진리”에 인용되어 있음,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19쪽.



유아반 연령의 어린이들은 사랑의 환경과 복음의 빛 안에서 튼튼하게 성장합니다.



너희의 어린 자들을 보라

부 모는 가정의 밤에서 사용하거나 어린 아이들을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더 배우기 위해 본 교재(물품 번호 37108 320)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가족

제임스 디 맥아더 박사
브리검 영 대학교, 상담 및 경력 센터 책임자

저는 제가 젊은 부모였을 때 교리와 성약 93편 40절을 읽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명하여 너희 자녀를 빛과 진리로 양육하라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있는 가정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온전한 가족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온전한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온전한 가족의 구성원들은 서로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문제들을 함께 완벽히 풀어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가족을 “온전하다”고 부른다고 해서 그 가족이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가족들은 가족 구성원들의 독특한 개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온전한 가족을 보면, 가족 구성원들은 그들이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참으로 가족 구성원들은 개인의, 그리고 가족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복음 원리들을 그들의 삶에 적용하려 노력할 때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전문 조연가의 입장에서 부부 및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저는 가족이 온전해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몇몇 원리들을 배웠습니다. 이 기사는 그 중 몇 가지만을 다룬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만의 원리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원리들을 읽어가면서 잠시 시간을 내어 그것들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가족의 경우, 부모는 자녀들에게 올바른 원리들을 가르치는 데 힘을 쏟고 자녀들이 그들의 선택의지를 행사하도록 허락합니다.

부모로서, 그리고 조부모로서, 저는 제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정확한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사랑, 교훈, 시간, 관심, 도움, 지도, 그리고 배려를 제공하려 노력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선택에 좋고 나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이 포함됩니다.

가끔씩 부모로서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무심코 자녀들을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감독관의 역할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이 접근 방법의 문제점은 자녀들이 억압이나 강제에 반항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특히 자녀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더해갑니다. 우리가 감독관으로서 행사하는 행동을 줄이고 좀 더 조언자로서, 상담자로서, 그리고 안내자로서 행동할 때 우리는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원리들을 가르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들의 성숙도와 경험이 커져 감에 따라 계속해서 그들에게 스스로 선택하고 결과를 거두는 더 큰 자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가족의 경우, 부모는 의도적으로 그들의 가족을 강화시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각 자녀들의 필요 사항을 깊이 생각해 보고 그것들을 가족의

온전한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일하여 서로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가족을 말합니다.

전반적인 필요 사항과 관련하여 평가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바쁜 삶 속의 문제들에 계속해서 수동적으로만 반응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쁜 일정과 인생의 요구사항들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가족의 필요 사항과 요구사항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능동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 어떠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결정하기보다, 환경, 다른 사람들, 혹은 오래된 습관들이 여러분에게 지시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수동적인 반응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의 최고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불행한 상황들로 이끕니다.

가족을 강화하기 위해 부모가 쓸 수 있는 최상의 방법들 중 하나는 매주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의논하기 위해 특정한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가족 토론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가족 토론 시간을 정함으로써,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는 가족의 필요 사항을 정기적으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시간도 갖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편부모라면, 매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깊이 생각하고 기도할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가족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또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말하는 것 혹은 말로 하지 않고도 전하는 것들의 영향력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로서 여러분은 자녀들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그들을 어떤 존재로 여기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 메시지들은 여러분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태도에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메시지들은 자녀들이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여기게 되느냐를 결정짓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종종 상처를 주게 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런 메시지의 예는 자녀를 무시하거나 자녀에게 참을성 없이 대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과 보낼 시간이 부족할 만큼 바쁘다면, 여러분은 “너는 내게 그다지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너무 자책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어쩔 수 없이 바빠질 때가 있기도 하니까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자녀들에게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그들을 교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때때로 자신이 자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 점검해 봄으로써 필요하다면 그 메시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의도적으로 보내고 싶은 메시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전에 계획한다면, 많은 경우, 그러기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매일 자녀들이 일어나기 전에 출근을 해야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작은 쪽지나 색칠한 종이를 자녀의 침대 밑에 붙여 두어 아이가 일어나자마자 제일 처음 보는 것이 그것이라면, 자녀가 얼마나 놀라고 행복해 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쪽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안녕! 아빠는 너를 사랑해! 저녁 식사 때 보자. 아빠가 집에 오면 같이 놀자!” 이러한 종류의 긍정적인 메시지는 영원히 지속적이고 강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온전한 가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가족 안에서 각 구성원간의 관계를 정기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혹시 어떠한 이유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해결되지 않은 특별한 문제나 필요 사항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귀를 기울이고 영에 민감함으로써, 여러분은 자녀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필요 사항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한 가지 의문을 자아냅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여러분 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거나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은 그것을 개선시키기 위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제가 배운 한 가지 사실은 일반적으로 관계는 우연히 좋아지지 않으며, 우리가 그 결과를 우선 과제로 두고 노력할 때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방법들을 사용하여 관계에 시간을 투자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제가 사용했던 방법들 중 여러분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함께 이야기한다. 함께 논다. 일대일로 둘만의 시간을 함께 보낸다. 애정을 담은 편지나 카드나 쪽지를 보낸다. 칭찬한다. 뜻밖의 것이면서도 재미있는 것을 해 본다. “사랑한다”고 말한다.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인다. 일을 할 때 도움을 청한다. 개인적인 감정들을 나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려면 상대방이 하고 있는 것들에 개인적으로 연관되어야 합니다. 그 후, 가족 토론 시간 동안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노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긍정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가족의 경우, 부모는 적극적인 교사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좋은 교사가 되는 부모의 아주 훌륭한 예였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이브[는] ...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딸들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모세서 5:12)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가르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과 축복 등의 복음 원리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인생을 사는 기술뿐 아니라 복음을 가르칠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녀들의 영적인 교육을 그저 운에 맡기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녀들의 복리에 대한 커다란 모험을 하는 것이며 자녀들은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들을 배우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이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토론 시간에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몇 달 동안 우리가 가족 안에서 가르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그것을 가르치고 싶은가?” 가족 목표로서 그 대답들을 적어보고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두십시오. 그런 다음 여러분의



목표를 따르십시오.

그밖에 어떤 것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제들 중에는 예의, 정직, 기도, 경전 공부, 재정 관리 및 빚을 지지 않는 것, 가족 안에서의 상호 존중, 시간을 효과적으로 쓰는 법, 화를 다스리는 법, 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가정에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가르침은 직접적인 정식 교습 환경 밖에서도 일어납니다. 간접적인 가르침은 여러분이 말을 사용하지 않고 가르칠 때 일어납니다. 사실 여러분이 없는 곳에서도 “가르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제 자녀들이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특성들을 나타내는 그림들을 걸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 상황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눈보라 속에서 여행하는 개척자들의 그림 같은 것들을 걸어 놓습니다.

또 집의 거실에는 손자 손녀들의 독사진 29개를 벽난로 위에 선반을 따라 걸어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지만 사람들은 눈에 띄는 이 전시물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못 보고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진들은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우리 가족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온전한 가족의 경우, 부모는 모범으로 이끕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알건 모르건, 항상 우리를 보고 우리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저의 행동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봅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공적으로, 또 사적으로 나의 모범을 따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 라면, 저는 필요한 부분들을 바로잡습니다.

여기 제가 제 스스로에게 자문해 본 질문들 중 몇 가지가 있습니다.

- 나는 자녀들이 인내심을 갖기를 바라는가? 그렇다. 그러므로 나도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 나는 자녀들이 편안히 지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인생을 즐기는 법을 배우기를 바라는가? 그렇다. 왜냐하면 나는

마지막으로, 온전한 가족의 경우,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르칩니다. 이 신앙은 다른 방법으로는 이룰 수 없는 가족 생활을 위한 확실하고도 단단한 기초를 세워줄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계명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에 관해 베냐민 왕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너희는 참되고 진지한 길로 행하도록 그들을 가르칠 것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도록 그들을 가르칠 것이니라.”(모사이야서 4:15)

아마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하게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을 믿는 신앙에 대해,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 가르치는 일일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간증을 전하면서 말로써, 모범으로써, 또한 영으로써 올바른 원리들을 가르치십시오.

이러한 특성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자주, 자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한다.

- 나는 자녀들이 경전과 건전한 책들을 읽기를 바라는가? 그렇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내가 읽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들에게 읽어주기도 한다.
- 나는 자녀들이 가족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를 바라는가? 그렇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안아주고 뽀뽀해 주고, 그들에게 웃어 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 주고, 그들과 놀아 주고, 그들과 개인적인 경험들을 나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가 개인적인 문제는 물론 영적인 문제에서도 명확한 의식을 지닌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항상 성신의 인도를 받기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특히 상황이 힘들어질 때 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것입니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은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둘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간증을 전하면서 말로써, 모범으로써, 또한 영으로써 올바른 원리들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관계는 보통 하룻밤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발전합니다.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회복된 복음에 기초를 둔 온전한 가족을 이루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과 더욱 친밀해지고 그들에게 더 큰 조화와 행복을 느끼는 가운데 문제들에 맞설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

주

1.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세대

여러분이 새로운 회원이든 혹은 여러분의 가족이 수십 년간 교회에 속해있었던, 과달루프의 후기 성도 청소년들이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다. 그것은 복음에 따라 생활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강화된다는 것이다.

리차드 엠 롬니
교회 잡지

열 두살인 코랄리 “코코” 가미트에게는 가고 싶은 곳이 많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라 캐스카데 오 에크레비쎬라고 불리는 폭포이다. 그곳은 과달루프 서인도 제도 섬에 있는 곳으로 많은 초기 교회 회원들이 침례를 받은 곳이다.

코코는 그 폭포를 보면 물몬경에 나오는 “작은 나무들로 이루어진 숲”이 있는 “맑은 물의 수원”으로 묘사된 물몬의 물이 떠오른다고 말한다. 물몬의 물은 바로 엘마의 가르침을 믿은 450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은 곳이다. (모사이아서 18장 참조)

물론, 오늘날 과달루프에서는 교회의 대부분의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예배당에 있는 침례탕에서 침례가 집행된다. 하지만 코코에게 라 캐스카데는 여전히 소풍을 하고, 냇가를 거닐며, 시원한 그늘에 앉아 그녀의 가족이 가진 교회의 유산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즐거운 장소이다.

프랑스로부터, 사랑으로

그 유산은 20여 년 전 프랑스의 도시 앙굴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다소 복잡한 이야기에 연관되어 있다. 그곳에서 전임 선교사들은 미셸 메나르딘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프랑스령이었던 과달루프 출신으로 군복무를 수행하기 위해 프랑스에 와 있었다. 미셸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침례와 확인을 받았다.

같은 해 같은 지역에서, 선교사들은 한 우편함에 소책자를 하나 남겨 두었다. 그것은 편모였던 클라우딘의 관심을 끌었는데, 그녀는 열아홉 살인 딸 텔파인을 키우고 있었다. 그들 모녀도 간증을 얻었고 역시 침례와 확인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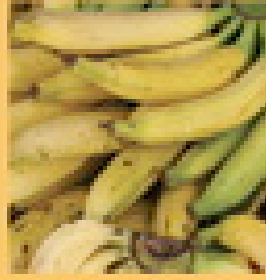
미셸과 클라우딘은 교회에서 만나 서로가 함께 해야 할 운명이라고 여기게 되었고 결혼하였다. (그들이 코코의 조부모이다.) 미셸의 어머니인 마르티는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양굴렘에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교회를 알게 되어 교회에 들어왔다.

후에 딸 텔파인은 워싱턴 주 시애틀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부름 받았다. 그녀가 봉사하는 동안 그녀의 부모님과 할머니는 과달루프로 이사갔다. 선교 사업을 마친 후 텔파인은 그들을 방문하기 위해 과달루프로 갔는데, 그곳에 있는 동안 플로리다 잭슨빌 선교부에서 귀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클라우데 가미테를 만났다. 그는 지부 회장단에서 텔파인의 의붓 아버지 미셸의 보좌로 봉사하고 있었다. 그 두 귀환 선교사는 데이트를 시작했고 얼마 후 결혼하였다. 클라우데와 텔파인이 코코의 부모이다. 14년이 지나고 다섯 명의 자녀가 태어난 지금, 클라우데 가족은 교회 안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으며, 바세테레 과달루프 지방부의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그러한 긴 역사를 거쳐, 코코는 후기 성도의 네 번째 세대이다. “저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저는 평생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며, 초등학교를 다녔고



성스러운 곳

물 몬의 물은 엘마로부터 가르침과 침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성스러운 곳이었다. “몰몬의 장소, 몰몬의 물, 몰몬의 숲이며, 이 곳들이 거기서 그들의 구속주에 대한 지식에 이른 자들의 눈에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뿐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복되냐, 이는 그들이 영원토록 그의 찬송을 부를 것임이로다.”(모사이아서 18:30)

여러분이 좋아하는 곳 중에서 경전에 나오는 장소를 기억나게 해주는 곳이 있습니까?





이제 청년회에 다니고 있으며, 제 부모님과 그들의 부모님, 또 그들의 부모님이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이 복음이 참되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베풀 때 그들이 맺었던 약속이 나와 있는 모사야서를 읽을 때면, 저는 그것이 제가 평생 동안 보고 느껴 왔던 것임을 알게 됩니다.”



코코는 가족의 범위가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넘어 존재한다고 그녀의 증조 할머니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분은 가족이 세대를 넘어, 영원에서 영원으로 뻗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우리 가족 안에서 그것을 봅니다.”라고 코코는 말한다.



매일 매일 조금씩

섬의 다른 지역에 있는 바세테레의 중심 도시에서, 교회는 열세 살인 루지아 두플로와 그의 누나인 열일곱 살의 스텔라에게 두 세대에 걸친 유산이 되어 가고 있다. 그들은 2년 전에 그들의 큰 누이와 남동생,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들어왔다. 그들은 복음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가르쳤다고 말한다. 그들은 특별히 가정의 밤을 좋아하는데, 그들은 아버지의 작은 가게 위에 있는 그들의 집에서 그 모임을 갖는다. 그들의 아버지는 가사 용품과 설탕, 양념, 사탕 및 동물 사료를 판다. 그들이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 나누기 좋아하는 곳은 바로 가게 뒤쪽에 있는 아버지의 사무실인데, 그 방의 벽에는 많은 후기 성도 교회 성전 사진들이 붙어 있다.

위, 맨 위부터:
세미나리반 학생들인 루지아, 트레비스, 에올, 레슬리(맞은편 페이지)가 함께 즐겁게 복음을 배우고 있다. 코코(이전 페이지)는 복음이 그녀의 가족을 강화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업차 아버지를 방문한 사람들이 그 건물들이 모두 무엇인지 알고 싶어할 때, 그 사진들은 아버지에게 작은 선교 사업의 기회를 제공합니다.”라고 스텔라는 설명한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아버지에게 그분이 맺은 영원한 성약과 목표들을 매일 기억하게 해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분명 우리에게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성전에 가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데, 아버지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그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두플로의 가족의 미래는 밝아 보인다. “교회는 과달루프에서 계속 성장하고 번영할 것입니다.”라고 스텔라는 말한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나누며 매일 매일 조금씩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세미나리와 골리앗

열다섯 살인 에올 몬트레돈은 비록 아직은 교회 회원이 아니지만,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전에 세미나리에 참석한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평생 교회 회원처럼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 주변에서 자랐고, 복음에 친숙하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그녀는 세미나리에 참석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게 되었는데, “비록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야 하지만 경전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 같은 청소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죠.”라고 그녀는 말한다. 세미나리가 아침 6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녀는 5시에 일어난다. “제 친구들 몇몇은 제가 미쳤다고 해요. 하지만 그때 제가 우리가 세미나리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면, 그들은 그것이 괜찮은 것 같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저는 그곳에서 성신을 느낍니다. 그것은 제가 하루 종일 기억하는 좋은 느낌입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 중 하나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이다. 그녀는 작은 사람들이 커다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녀에게 용기를 준다고 이야기한다. 때때로 그녀에게도 골리앗처럼 커 보이는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그녀의 부모님은 별거 중이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후기 성도 회원이 되기를 바라는 활동적인 회원이지만, 에올의 아버지는 그녀가 더 기다려야 한다고 고집한다. 그래서 그녀의 아버지를 공경하기 위해 그녀는 인내를 가지고 복음에 따라 생활하며, 언젠가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뀌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중이다.

“제가 교회의 청소년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주중에는 매일 세미나리에, 일요일에는 교회에 참석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며 자신을 강하게 해 주는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에올은 말한다. 비록 에올이 아직은 교회 안에서 여러 세대의 유산을 누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녀는 다가올 세대들을 위한 유산을 만들기 위해 오늘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저는 제가 지금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충실하게 남는다면,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이른 아침의 재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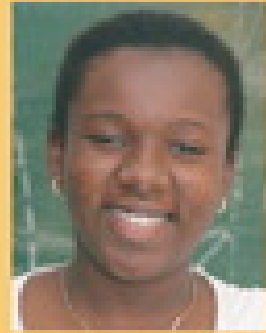
이른 아침 아침의 세미나리 반에서는 그가 가진 것과 같은 소망, 즉 시간이 지나면서 강화되고자 하는 소망이 명백히 나타난다. 반원들은 경전 참조 성구 찾기 경쟁을 벌인다. 그들은 열성적으로 칠판에 나와 그림을 그린다. 교사가 질문할 때마다 대답하려고 손을 재빨리 들어올린다.

“세미나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도와줍니다.”라고 열네 살인 트래비스 데바르는 말한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지금 선교 사업을 할 수 있고 이후에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배울 수 있으며, 머리를 좋은 생각들로 가득 채우고, 잠에서 완전히 깬 상태로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재생시켜 줍니다.”

재생하다라는 말이 가진 여러 의미 중 하나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거나 개심하다”이다. 그것은 또한 “더 좋고 높으며 혹은 가치 있는 상태로 회복되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 트래비스는 신권 봉사 역시 그를 재생시켜 준다고 말한다. “그것은 저와 제 가족을 축복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저는 저의 가족을 포함하여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 마음을 행복으로 채워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한다면,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열다섯 살인 레슬리 아무수가는 말한다. “우리는 그분이 항상 우리를 위한 길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계명을 지킨다면, 그분은 우리의 영혼에 빛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이 세대에서 세대로 우리가 스스로를 재생시키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

레슬리가 세미나리에 가는 이유



“저는 해가 뜨기 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라고 이빔 지부의 회원인 열다섯 살 레슬리 아무수가는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상이다. “우리는 세미나리에서 제가 집에서 스스로 하는 것보다 좀 더 깊게 경전을 공부합니다. 함께 공부하고 여러분을 도와주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진 교사가 혼자서는 완전히 이해하기 힘든 것들을 설명해 줄 때 여러분은 많은 좋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그리고 세미나리는 저의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일찍 일어나 세미나리에 참석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교에 갈 시간에, 몇몇 다른 학생들은 여전히 잠이 덜 깬 상태이지만 저는 이미 깨어 있고 활기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세미나리는 좋은 습관을 만들도록 도와주며, 스스로 일찍 일어나 공부와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줍니다.”



선교사로서의 나의 진정한 목표

데니스 바퓨스

내가 아르헨티나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한 지 두 달 만에, 내게 하나뿐인 여동생이 약혼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내 여동생 레베카와 나는 절친했고 서로의 결혼식을 꿈꿔 왔지만, 나는 이제 그녀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다.

부모님이 결혼식 계획과 사진, 음식 메뉴와 일정을 보내주셨지만, 나는 여전히 혼자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꼈다. 선교 사업은 어려웠고 큰 진전이 없었다. 나는 집에서 그토록 멀리 떨어진 곳에서 무얼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어하는 내 자신을 발견했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해 혼란스러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봉사하도록 부르신 분은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기도와 신권의 권능에 대한 강한 간증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확신과 위안의 축복을 받았다.

선교사들은 종종 모로나이서 10장 4~5절에 나오는 권고를 나눈다. 나는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한다면 성신의 권능으로 모든 것의 참됨을 알 수 있다는 그 구절에 나오는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다. 나는 집에 남아 있어 내 여동생이 결혼 준비를 하는 것을 돕는 대신에 아르헨티나에 온 것이 잘한 것인지 알고 싶어서 부지런히 기도했다. 동생의 결혼식이 가까워질수록 나는 더욱 마음을 다해 기도했다. 나는 확신을 주는 영의 영향력을 느꼈으나 여전히 응답을



한 젊은 남자가 우리를 불렀다.

우리는 그를 지나쳤지만 그는 다시 우리를 불렀다. 나는 그와 이야기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바라고 있었다.

결혼식 이 주일 전, 동반자와 나는 우리가 봉사하는 지부의 한 회원과 점심 약속을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 지부는 중부 아르헨티나의 작은 마을에 있었고 사람들은 정오에 낮잠을 자는 풍습을 즐기고 있었다. 하루 중 그 시간에는 보통 아무도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을 때 한 젊은 남자가 우리를 불렀다. 많은 젊은 남자들이 우리에게 잘못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지나쳐 계속 걸어갔다. 그가 다시 우리를 불렀을 때 나는 그와 이야기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의 이름은 호라시오였고, 그는 우리가 그의 사촌들과 물몬경을 함께

읽었던 두 젊은 자매들의 친구인지를 알고 싶어했다. 그는 우리 지부에서 전에 봉사했던 자매들이 책을 읽고 있을 때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그가 우리 교회에 와도 되는지 알고 싶어했다.

우리가 회원들의 도움을 받아 호라시오를 가르치는 동안, 복음에 대한 그의 사랑은 빠르게 자라났다. 복음 안에서 성장함에 따라 그의 삶은 바뀌었지만, 그의 가족들이 반대를 했고 친구들은 그를 외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라시오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느꼈으며 그를 따르고자 소망했다. 내 선교 사업 중 가장 특별했던 경험의 일부는 호라시오를 가르치는 일이었다.

나의 가족들이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성전의 의식실에 앉아 내 여동생이 해의 왕국에 갈 수 있도록 그녀를 준비시켜줄 의식들 중 하나를 받는 것을 바라보는 동안, 나는 아르헨티나의 제너럴 피코에 있는 작은 교회 예배당에 앉아 호라시오가 그의 첫 번째 구원의 의식인 침례를 받기 위한 준비로서 접견을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 여동생은 나의 도움 없이도 그녀의 의식을 준비할 수 있었지만, 호라시오는 그럴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복음을 배우기 위해 나와 내 동반자가 필요했고, 나는 선교사로서 나의 참된 목적은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도록 돕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그가 필요했던 것이다.

내가 선교 사업을 마치고 아르헨티나를 떠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때, 호라시오는 자신의 선교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런 후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기 위해 호라시오를 보내셨던 것이다. ■

그는 여기에 있어야 한다!

폴 컬버트

어느 토요일 아침, 영국 윌트셔에 있는 우리 와드의 한 청년 독신 성인 자매로부터 전화가 왔다. 나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그녀의 의붓

어머니가 아프셔서 집에 누워 계신데 거의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라는 것이었다. 친구는 그의 어머니가 비록 교회 회원은 아니지만 내가 그녀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교회 회원이 된 지는 몇 달 밖에 되지 않았지만, 신권회 모임에서 훈련을 받았기에 나는 다소 긴장은 되겠지만 축복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나는 동반자를 찾아 가능한 한 빨리 가겠다고 말했다.

나는 가장 가까운 곳에 사는 와드의 장로 한 명을 생각해 냈고 그의 집으로 운전해 갔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나에게 그날은 우리 스윈든 와드에 속해 있는 엔다우먼트 의식을 받은 형제들이 성전을 방문하는 날임을 알려주었다. 다소 실망한 채 그곳에서 운전해 나오면서, 나는 차를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를 구했다.

기도하면서, 나는 함께 갈 수 있는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가 있는지를 여쭙었다. 스튜어트 램지라는 이름이 갑자기 머리에 떠올랐다. 그의 전화번호가 없었지만 그와 그의 아내 질은 십 킬로미터 밖에 있는 공군 부대에 살고 있었다.

그들의 집에 도착한 나는 스튜어트 형제가 나와 동행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문을 두드렸다. 그의 아내는 놀랍게도 “그는 집에 없어요, 부대에 갔거든요.”라고 말했다.

이에 굴하지 않고, 나는 그와 연락이 닿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기계공인 스튜어트가 부대 내의 제한 구역에서 그의 친구의 차를

스튜어트가 자리를 비웠음에도 나는 왜 그의 도움을 구하라는 그토록 강한 느낌을 받았을까?



고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게는 전화로도 연락할 수 없었고, 또 내가 제한 구역에 들어갈 수도 없었다.

스튜어트가 집에 없었음에도 나는 왜 그의 도움을 구하라는 그토록 강한 느낌을 받았을까? 기도에 대한 응답을 내가 잘못 이해한 것인가? “아니야, 그가 여기에 있는 게 분명해.”라고 나는 혼자서 생각했다.

바로 그때, 나는 뒤에서 나를 부르는 기쁜 목소리를 들었다. “폴, 여기서 뭐하세요?” 스튜어트였다! 친구의 자동차를 고치는 일이 잘 되지 않았고, 그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느낌을 받은 것이었다. 나는 내가 처한 상황을 설명했고, 그는 나를 도와 축복을 주러 가는 데 동의했다.

축복을 준비하며 익숙하게 움직이는 스튜어트를 보면서 그가 함께 와 준 것에 감사했다. 그가 기름을 부었고 내가 기름 부음을 인봉할 때, 나는 병 고침의 축복을 말하도록 영감을 받았다. 스튜어트를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운전해 가는 동안, 그는 그의 집에서 나를 만날 수 있도록 때맞춰 자신이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가라는 영감을 받은 것에 대해 기뻐했다.

그 다음날 아침 내 친구의 의붓어머니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안 나는 기쁨에 넘쳤다. 그 이후로 나는 여러 번 축복을 주었다. 비록 우리가 신권의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우리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그분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일찍이 배울 수 있었음에 감사한다. ■

장로님들, 태워 드릴까요?

에를 페르난도

호 주 빅토리아에서 하루 종일 버스를 운전한 뒤, 나는 그날 저녁 마지막 목적지인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길에 나는 잘 차려 입은 두 명의 남자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버스를 멈추고 그들에게 태워줄 필요가 있는지를 묻기로 했다.

나는 그들에게 왜 명찰을 달고,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는지를

물었다. 그들 중 한 명이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선교사라고 말했다.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 물었을 때, 어떤 느낌이 버스 안을 가득 채우는 듯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성신이었음을 깨달았다. 내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달라고 했을 때, 나는 그들의 대답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으나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나는 선교사들을 댄데논에 내려주었다. 후에, 나는 그들의 전화번호를 받지 못했음을 깨닫고 슬펐다. 수 주 동안, 나는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버스 길을 따라 운전할 때조차 나는 그들을 찾았다.



선 교사들에게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 물었을 때, 나는 무언가를 느꼈는데 나중에 그것이 성신이었음을 깨달았다.

몇 달이 흘렀고, 2002년 8월 19일 나의 생일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아내 카멜리아와 함께 점심을 먹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대답하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바로 버스에서 만난 선교사들이었다! 내가 그들을 보고 놀란 것처럼 그들도 나를 보고 놀라는 모습이었다. 그들은 우리 동네에서 전도를 하다가 우리의 집으로 인도되었던 것이다. 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제이슨 프랜즈슨과 제임스 쉘리 장로는 곧바로 우리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물론경과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우리에게 생소했지만, 우리는 전부터 지닌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 복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선교사들은 우리가 배운 것들에 대해 기도하고 깊이 생각해 보라고 권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영을 느꼈으며, 교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소망과 침례를 받으라는 속삭임을 느꼈다. 우리는 그 이후로 계속 축복을 받고 있다.

여러 해가 지난 오늘도 나는 여전히 버스를 운전하고 있으며 선교사들을 태워 준다. 하지만 이제 나는 선교사들에게 사람들을 소개하고 물론경과 기타 교회 책자들을 승객들에게 나눔으로써 그들이 하는 선교 사업을 돕고 있다.

내 버스에 타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눈치채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왜냐고 물으면 나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대답한다.

“주님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 역시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

한 잔만 마셔

엘리너 에프 윌리엄슨

교회에 들어온 지 오래 지나지 않아, 남편과 나는 버뮤다로 휴가를 떠났다. 그곳에 머물던 어느 오후, 나는 우리가 머문 호텔에서 열린 사교 모임에 참석했다. 맛있게 보이는 페스트리를 보고 있는데 차 향기가 났다. 그 향이 너무도 매혹적이었기에 나는 마음 속으로 다음과 같은 말이 들리는 것 같았다. “한 잔만 마셔.”

나는 침례를 받은 후 지혜의 말씀을 충실하게 지키며 살아왔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아니, 왜 그래.” 나를 달래려는 목소리가 답하는 것 같았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그리고 집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잖아.”

더 강한 확신을 가지고, 나는 마음속으로 다시 대답했다.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다시 한번 유혹과 합리화의 소리가 들려왔다. “절대로 아무도 모를 거야.”

단호하게 나는 대답했다. “내가 알잖아!”

바로 그때, 차를 따라주는 웨이터가 내 옆에 서 있었다. 나는 단호하게 그를 지나쳤다. 테이블을 바라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소리에 나는 깜짝 놀랐다. 놀랍게도 나는 수년 동안 보지 못했던 이전 직장 상사가 나를 향해 웃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나에게로 왔고 우리가 함께 테이블로 걸어가는 동안 그는 이렇게 말했다. “물론 교회에 다니기



다시 한번 유혹과 합리화의 소리가 들려왔다. “아무도 모를 거야.”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나는 그에게 몇 가지 복음의 원리들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으로서의 행복감, 그리고 나의 간증을 기쁘게 그와 나누었다. 그는 그의 가족들의 이름을 조사하고 있었으며 가족 역사에 관련된 많은 세대들을 기록해 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교회에 대하여 나는 것들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을 가졌으며, 나는 우리가 대화를 하는 동안 충만한 영을 느낄 수 있었다.

함께 이야기하던 중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만약 쟁반에 있던 차를 한잔 마셨다면 이러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을까?” 나는 그 대답을 알고 있었다. 내가 만약 유혹에 굴복했다면, 나는 기억에 남을 만한 영적인 경험을 하고 간증을 나눌 기회를 놓치고 말았을 것이다. ■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가르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다음 제언들은 가정에서만 아니라 교회 공과반에서도 사용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반원들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가족 중에 혼자만 회원으로 지내는 것”, 16쪽: 가족들에게 종이 쪽지에 주님께서 그들을 돕고 축복하신 방법에 대해 적게 한다. 감사의 단지를 만들고 종이 쪽지들을 그 안에 넣는다.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신 경험을 할 때마다 쪽지를 적어서 단지에 넣으라고(혹은 그들의 일기에 적으라고) 권유한다.

“새로운 개종자로 성공하기”, 22쪽: 여러분이 새로운 회원이든 아니든 교회 회원들과 우정을 쌓는 것은 중요하다. 가족과 함께, 여러분의 와드나 지부의 회원들과 우정을 쌓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의한다. 이러한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지속되는 우정 관계를 만들어 주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도록 도울 수 있다.



“아무도 모를 거야”, 28쪽: 절대로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논리가 잘못된 이유와 가족들이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의한다. 몇 가지 유혹들을 열거하고, 가족들에게 그러한 유혹이 올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역할극을 하도록 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읽는다.

“세대”, 40쪽: 여러분의 개종 이야기 또는 복음을 처음 알게 된 조상들의 이야기를 나눈다. 가족들에게 그들의 삶에서 왜 복음이 중요했는지 서로 이야기하도록 권유한다.

“활동의 날에 초대하기”, 친10 과 **“나는 지금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친14쪽: 이 이야기들을 읽은 후에, 교회 모임이나 활동에 초대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본다. 이웃들과 친구들, 가족의 이름을 열거한다. 비록 여러분 생각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들의 이름을 포함시킨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의 초대에 응할지 결코 알지

이번 호의 주제들

페이지 수는 각 기사의 첫 번째 페이지를 뜻합니다.

친=친구들	신권 축복, 45, 친2, 친6
가르침, 32, 36	신성, 10, 25, 친8
가족, 16, 36, 40, 친4, 친8, 친16	십일조, 28
간중, 2, 8	아담과 이브, 10, 친8
개중, 16, 18, 22, 40, 44, 친13	여성, 25
경륜의 시대, 10	영감, 45
기도, 44, 45	예수 그리스도, 2, 10
단할, 7	외설물, 15
또래 집단으로부터 받는 압력, 26, 28	유아반, 32
방문 교육, 25	유혹, 26, 28, 47
병 고침, 친2, 친6	의식, 44
부모, 36	일부만 회원인 가족, 16
선교 사업, 44, 46, 47, 48, 친10, 친14	조셉 스미스, 2, 7, 8, 친6
선지자, 10	지혜의 말씀, 26, 47
성약, 10	첫번째 시험, 2, 8
순중, 26, 28, 47	초등회, 32, 친4
신화원, 18, 22	친구들, 친10
	활동 유지 18
	활동화, 18
	회복, 2, 8, 10

못한다. 모임이나 활동 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명단에 있는 몇몇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참석하도록 권유한다. 모임에 가는 길에 그들과 함께 걷거나 가능하다면 차를 태워주겠다고 권한다. 그들이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그들과 우정증진을 계속한다.

가정의 밤 초대장

12년 전 침례를 받은 이후로 나의 삶은 크게 변화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남편과 나는 우리가 받은 신성한 빛을 다른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선교사들과 몇몇 이웃들을 우리 가족의 가정의 밤에 초대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웃을 위해 작은 초대 카드를 만들었다. 가정의 밤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데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기 시작했다. 모두들 관심의 정도는 달랐지만 대부분이 활동과 다과를 좋아했다. 우리가 초대한 한 가족은 침례를 받기도 했다!

가정의 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속하게 된 행복감을 나눌 때, 내 신앙 역시 자라났다.

글래디스 엘레나 예페스 드 벨라스케즈, 콜롬비아 안티오키아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가정의 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가정의 밤에 대한 이야기를 liahona@ldschurch.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